

〈통합교육 플랫폼 신한 easy〉

VR로 ‘경제교육’ 줌으로 ‘자립준비’… 노후생활도 ‘신한이지’

신한금융 세대별 금융교육 선도

33만5766명.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이 실시한 금융·경제교육에 참여한 인원이다. 2020년과 2021년에는 7만여 명이던 금융교육 참여 인원이 1년 새 5배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그룹사 통합 금융교육 플랫폼 ‘신한 이지(easy)’를 구축하면서 금융교육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신한금융은 어린이, 청소년, 실버 세대 등 전 세대에 걸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세대별 맞춤형 금융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신한금융은 2012년부터 금융지식 전달, 건강한 금융소비자 양상을 목표로 금융교육을 시작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금융관을 심어주기 위해 신설한 ‘신한어린이금융체험교실’은 신한금융의 대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다. 11년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미션수행형 금융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적금, 카드, 환전 등 포스트별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대면 금융교육이다. 매년 횟수를 늘려 더

알파세대에 ‘금융체험교실’ 실시 Z세대엔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 실버·소외계층엔 맞춤 영상제공

많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찾아가는 금융체험교실’도 대표 금융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다. 맞춤형 금융교육으로 금융을 접할 기회가 적은 도서산간지역의 초·중·고와 중학교를 방문해 금융교육과 은행원 직업체험교육을 진행한다. 매년 80회 이상 방문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보다 효과적인 금융교육을 위해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동시에 매년 리서치를 통해 니즈를 파악하고 알맞고 새로운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에는 금융권 최초로 증강현실



신한금융그룹 금융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계좌 개설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금융

(AR)·가상현실(VR) 콘텐츠를 개발해 금융교육에 도입했다. 이듬해에는 게임형 금융교육 콘텐츠와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영상을 제공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디지털 환경 속에 적합한 에듀테크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기도 했다.

‘금융교육 뮤지컬’과 비대면 교육 확대를 위한 ‘랜선은행탐험’ 등의 프로그램은 매년 약 4만 명이 교육을 듣고 있다.

신한금융은 광화문에 ‘청소년금융교육센터’도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체험방식의 금융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며 자연스럽게 금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지난해 7월에는 광

화문 ‘청소년금융교육센터’를 리뉴얼해 명동에 재개관했다.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약계층과 실질적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흔 자서 은행을 거래하기 힘든 ‘발달장애인, 탈북민들을 위한 생활금융교육’ △자립을 앞둔 아동양육시설의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금융교육’ △디지털금융이 낯선 시니어 대상의 ‘디지털금융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온라인 교육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신한금융은 줌(Zoom)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어린이 금융체험교육을 마련했다. 어르신 금융교육을 위해 올해 9월 인천 남동구에 금융 교육 센터 ‘신한학이재’를 개관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교육용 태블릿을 통한 디지털 금융기기 교육과 함께 금감원과 함께 제작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배움이 생활이 될 때까지… 전전한 금융의식 전파”

오진섭 신한銀 사회공헌부 수석

적금·예금 구분 못하던 청소년들 교육 통해 경제의식 갖출 때 뿌듯

“은행의 젊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한어린이금융체험교실’을 통해 아이들에게 직접 금융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 내내 아이들과 멘토, 멘티로 짝을 이루다 보니 유대감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죠.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님 손을 잡고 멘토였던 직원의 영업점에 찾아와 통장을 만들고 적금에 가입하곤 합니다. 학습

을 통한 금융교육이 실제 금융생활로 이어진 긍정적인 사례라고 생각해요.”

오진섭(사진) 신한은행 사회공헌부 수석은 7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신한금융이 운영하는 금융교육이 아이들의 올바른 금융관을 심어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중·고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입시 중심의 국내 교육환경에서는 아직 먼 얘기다.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선 선택과목으로 ‘금융과 경제생활’이 생기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수업 개설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공교육이 금융교육을 외면하면서 청소년들의 금융 학습에 구멍이 뚫렸다.

오 수석은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교육하다 보면 금융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예상보다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에 대한 구분은 물론 이자라는 개념도 명확하게 아는 학생이 많지 않아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금융교육 대신 자극적인 금융정보를 먼저 접하다 보니 금융에 대한 이해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잘못된 정보로 금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는 “주식이라는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다”며 “주식 투자로 인해 큰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은 평소 금융을 직접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매체에서 노출되는 자극적인 문구만 기억하다 보니 금융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앞섰다”고 덧붙였다.

신한금융은 빠르고 복잡하게 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오 수석은 “파생상품 등과 같이 새로운 금융상품이 생겨나면서 다양한 금융투자의 기회가 생겼지만, 금융에 대한 학습이 부족과 왜곡된 금융의식으로 인해 금융과 관련된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금융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범근 기자 nova@

후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새마을금중앙회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식품산업의 혁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함께합니다.

식품기업을 위한
지원사업문의·분양안내
063-720-0500

〈CEO 준비생〉

최태원 “서든데스 돌파”… 준비된 ‘C준생’에 지휘봉 맡겼다

SK그룹이 오너 일가를 그룹 2인자에 올리고, 50대 최고경영자(CEO)를 전진 배치했다.

이번에 교체되는 최고경영진은 2016년 말 선배 경영인들이 대거 교체될 당시 주요 계열사 대표직에 오른 인물들이다. 이처럼 7년 만에 대대적인 세대교체에 나선 건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그룹 주력 사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최태원〈아래 사진〉회장의 결단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SK그룹 내 반도체 사업은 적자 수렁에 허덕이고 있으며, 배터리는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젊은 50대 후임을 경영 일선에 배치해 경영 불확실성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최태원 회장은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EO 세미나’에서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로 빠르게, 확실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며 ‘서든 데스(돌연사)’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7일 SK는 세대교체에 나서면서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 조대식 전 의장 후임으로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59)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을 내정했다.



SK(주) 장용호(이하 사장)



SK이노베이션 박상규



SK에너지 오종훈



SK엔무브 김원기



SK실트론 이용욱



SK머티리얼즈 김양택

최창원 의장은 고(故) 최중건 SK그룹 창업회장의 막내아들이자, 최태원 현 SK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이다. 1964년생인 최창원 의장은 1960년생인 최태원 회장보다 네 살 아래, 최태원 회장의 친동생인 1963년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보다는 한 살 아래다. 진중한 성격의 ‘위커홀릭’으로 알려진 최창원 의장은 사촌 형인 최태원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 오너 일가인 최창원 의장의 등용은 4인 부회장의 퇴진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재계에서는 해석한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SK그룹의 최고 협의기구로 SK(주)와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주요

대표이사 교체된 7개사 중 3개사 SK에너지·엔무브·머티리얼즈 차세대 CEO 육성프로그램 수료

신규 임원 0.5세 어려워져 48.5세 투자업무 SK(주) 모두 넘겨 효율화



계열사 20여 곳이 참여한다. 이 협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은 부회장급이지만, 실질적인 위상과 사내 입지는 ‘그룹 2인자’로 통한다.

SK는 이번 인사를 통해 세대교체도 가속화했다. SK(주),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엔무브, SK온,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등 7개사의 CEO를 교체했다. 특히 신규 선임된 3인의 CEO(SK머티리얼즈 김양택, SK엔무브 김원기, SK에너지 오종훈)는 그룹 차원의 차세대 CEO 육성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준비된 CEO를 통해 세대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회사 측은 자평했다.

SK는 글로벌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수 관계사가 조직을 효

율화하고 임원 규모를 축소했다. 그룹 전체의 올해 신규 선임 임원은 이날 기준 총 82명으로, 2021년도 107명, 2022년도 165명, 2023년도 145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신규 임원 선임 평균 연령은 만 48.5세로 전년(49세)보다 0.5세 어려졌다. 최태원 회장의 장녀인 최윤정(34)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이 최연소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SK는 투자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그간 SK수펙스추구협의회와 SK(주)로 분산돼 있던 투자 기능을 모두 SK(주)로 이관했다. 계열사 간 중복 투자 등으로 투자 실적이 악화하고, 업황 악화로 자금난까지 심각해지자 ‘신중한 투자’로 경영 기조를 전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SK 측은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해 투자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이번 SK인사에 대해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경영의 판을 짜서 위기를 빠르게 돌파하겠다는 최태원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장녀인 최윤정〈사진〉SK바이오팜 글로벌투자본부 전략투자팀장이 7일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승진했다.

SK바이오팜은 이날 이사회보고를 거쳐 2024년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개편과 인사는 연구개발 효율성과 유연성 및 협업을 강화하고, 사업개발과 전략투자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바이오팜은 연구개발 분야에서 기존의 조직 중심이 아닌 프로젝트 중심의 애자일(Agile·민첩한) 조직 체계를 도입

했다. SK바이오팜과 미국 현지 연구 중심 자회사인 SK라이프사이언스랩스(SK Life Science Labs) 간 공동 연구 추진을 위한 ‘글로벌 연구개발 위원회(Global R&D Committee)’를 신설했다. 또 차세대 3대 영역 플랫폼인 표적단백질분해(TPD), 방사성의약품치료제(RPT),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사업의 확장을 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개발본부 산하로 사업개발팀과 전략투

SK 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집중할 듯



자팀을 통합 편성하는 등 시너지를 도모하기로 했다.

신임 최 본부장은 중국 베이징 국제고를 거쳐 미국 시카고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했다. 이어 시카고대 뇌과학연구소 연구원과베인앤드컴퍼니 컨설턴트 등을 거쳤다. 2017년 SK바이오팜 경영전략실 전략팀으로 입사했으나, 2019년 휴직 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바이오인포매틱스(생명정보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 2021

년 7월 복직해 올해 1월 글로벌투자본부 전략투자팀장으로 승진했다.

올해 3월 최 본부장은 SK그룹 지주사 SK(주)와 SK바이오팜이 참여한 ‘혁신신약 태스크포스(TF)’에 합류해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양사의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신성장 전략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번 승진으로 최 본부장은 SK바이오팜의 대표 제품인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를 잇는 후속 파이프라인 확보에 집중하면서, 신성장동력 마련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장녀 최윤정도 임원… ‘바이오’ 경영능력 시험대

출근할 때 뽑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코드 뽑기 0.32kWh

자기 전에 끄고
TV 셋톱박스 전원끄기 0.08kWh

함께 모여 바꾸고
LED고효율 조명으로 교체 0.54kWh

그때그때 비우고
냉장실 20% 비우기 0.1kWh+전기밥솥 비우기 0.06kWh

**우리가족
1kWh
줄이기
로부터
시작**

뽑고, 끄고, 바꾸고, 비우고
가족 모두 각자 할 수 있는 1kWh 줄이기를 실천해 보세요.
네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
어렵지 않게 하루 1kWh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앞자리에 **한국전력**

하루 1kWh 줄이기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kWh/일 03. 세탁기 사용 시 세탁물은 모아서 사용하기 - 0.09kWh/일

SK, ICT 계열 CEO는 연임... 변화보단 '경영 안정' 방침

SKT 유영상 'AI 혁신' 이끌어
개인 비서 '에이닷' 성과 인정

SK스퀘어 박성하 대표 체제로
반도체 등 투자 전문성 제고
7월 선임 SKB 박진호 자리 지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박성하 SK스퀘어 대표



박진호 SK브로드밴드 대표

SK그룹 정기 인사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 수장들은 최고경영자(CEO) 물갈이가 이뤄진 다른 그룹 계열사와 달리 대부분 자리를 지켰다.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진행될 사업 재편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7일 2024년도 조직 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유영상 대표는 새해에도 SKT의 '글로벌 AI 컴퍼니' 도약을 이끌게 됐다. 유 대표의 연임은 AI 혁신을 주도하고 AI 개인 비서 에이닷과 에이닷을 활용해 아이폰 통화녹음·요약 기능 출시 등 AI 파이프라인 전략을 성공적

으로 이끌었다는 평가와 함께 AI 컴퍼니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박정호 부회장의 용퇴로 유 대표의 그룹 ICT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유 대표는 이날 "2024년은 'AI 파이프라인' 전략의 실행력을 극대화해 변화와 혁신의 결실을 가시화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이번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는 회사 전략 실행에 가장 효과적인 조직 구조를 갖추고 동시에 글로벌과 AI 역량 및 전문성이 검증된 인재를 중심으로 리더십을 개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AI 파이프라인 전략은 첨단기술을 육성하는 'AI 인프라', 주요 사업에 AI를 접목하는 'AIX(AI 전환)',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는 'AI 서비스'로 요약된다.

이 밖에 SKT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CR(대외협력), PR(홍보) 기능을 총괄하는 '대외협력 담당'을 신설, 정재현 사장을 선임했다. 신임 정 사장은 1968년생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20년 SK텔레콤에 영입됐다. 앞으로 SK텔레콤의 AI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글로벌 환경에서 CR·PR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올해 7월 SK브로드밴드 대표(CEO)에 선임된 박진호 사장, 작년 말 SK스퀘어 대표(CEO)에 선임된 박성하 사장 등 그룹의 ICT 패밀리 계열사 대표들도 자리를 지켰다.

박정호 부회장이 손을 떼는 SK스퀘어는 박성하 대표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이날 기존 포트폴리오 밸류업과 리밸런싱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2024년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반도체 등 핵심 분야별 투자 전문성을 제고하고,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기능도 재편했다.

여기에 CJ ENM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과 SK스퀘어의 OTT 플랫폼 웨이브의 합병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도 과제다. 아직 합병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CJ ENM이 합병법인 최대주주에 오르고 SK스퀘어가 2대주주가 된다. 양사는 실사를 거쳐 내년 초 본계약을 맺을 전망이다.

김나리 기자 nari34@

수익 개선·신용도 향상 SK렌터카 황일문 유임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던 SK렌터카의 황일문(사진)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다. 그간의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SK그룹은 이날 SK수펙스추구협의회 등 부회장단을 비롯해 일부 계열사별 연말 인사를 단행했다. 황 대표는 연임이 확정됐다.

앞서 2021년 인사에서 SK렌터카 수장이 된 황 대표는 그룹 내에서도 전략적으로 손꼽힌다. SK렌터카 모회사인 SK네트웍스에서 전략기획실장, 전략본부장을 비롯해 위커킨 호텔앤드리조트 총괄 등을 역임했다.

황 대표가 SK렌터카 대표를 맡은 이후 남긴 족적은 뚜렷하다. 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됐으며 신용등급이 올라갔다. 이에 따라 조달금리는 낮아져 또다시 수익과 매출이 오를 수 있는 밑바탕이 형성됐다.

황 대표가 취임한 첫해(2021년) SK렌터카는 연결기준 매출 1조369억 원, 영업이익 791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매출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20.1%, 11.7% 늘어난 수치다.

장기렌터카 누적방문 1000만명 올해 영업이익률 9.3%까지 올라

성장세는 작년과 올해에도 이어졌다. 지난해 매출은 1조2465억 원으로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951억 원으로 커졌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매출이 6409억 원이었음을 고려하면 3년 만에 두 배가량 성장한 셈이다. 올해 들어선 1~3분기 누적 매출 9367억 원, 영업이익 834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4.2%, 18.6% 신장하며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을 예고한다. 수익성도 갈수록 좋아져 2019년 6.5%였던 영업이익률은 2021~2022년 모두 7.6%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9.3%까지 올라 두 자릿수를 넘보고 있다.

황 대표가 취임 직후 선보인 온라인 판매 채널 'SK렌터카 다이렉트'가 주효했다.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산 속에 기존 15단계 6단계로 대폭 축소해 3분이면 장기렌터카 예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출시 2년간 누적 방문객 1000만 명을 넘기며 인기를 끌고 있다. 황 대표는 이외에도 업계 최초 탄만 큼만 요금을 내는 'SK렌터카 타고페이', 신차급 중고차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고차 장기렌터카' 같은 혁신 서비스들을 잇달아 선보였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갖추자 신용등급도 올랐다. 3월 한국신용평가를 시작으로 5월 NICE신용평가, 6월 한국기업평가 등 3대 신용평가사는 SK렌터카 회사채와 기업채 신용등급을 각각 'A(안정적)', 'A2'에서 'A+(안정적)', 'A2+'로 한 단계씩 상향 조정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SKT 'AI 컴퍼니' 전환 속도 낸다... "수익 창출 관전"

전사 'AI 파이프라인 전략' 박차
유영상 "새해 혁신 결실 가시화"

SK텔레콤이 내년 'AI 컴퍼니'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인공지능(AI) 개인 비서 에이닷(A.)으로 성과를 낸 유영상 대표가 유임되면서 AI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수익 창출이 관건이 될 내년 AI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전사 차원에서 AI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SKT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4년도 조직 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조직 개편에서는 9월 발표한 'AI 파이프라인 전략'의 추진을 목표로 △AI서비스사업부 △글로벌/AI테크사업부 △T-B 커스터머사업부 △T-B 엔터프라이즈사업부 등 4대 사업부 체계를 구축했다.

SKT AI 컴퍼니 전환 조직개편

AI 파이프라인 전략 위한 4대 사업부 구축

- AI서비스사업부, Global·AI Tech사업부
글로벌 PAA와 텔코 특화 LLM 개발 협력, 기존 사업 AIX 전환 지원
- T-B Customer사업부, T-B Enterprise사업부
SKT, SK브로드밴드 원팀 체제로 전 사업에 AI 도입 추진

AI서비스사업부와 글로벌 AI테크사업부는 글로벌 PAA(Personal AI Assistant)와 함께 텔코 특화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친다. 유무선 통신, 미디어, 엔터프라이즈 등 기존 핵심 사업의 AIX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T-B 커스터머사업부와 T-B 엔터프라이즈사업부는 유무선 통신, 미디어, 엔터프라이즈 등에 AI를 결합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을 담당한다. 이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T-B 원

AI 솔루션 사업 전담 '톱 팀(Top Team)' 신설

- Global Solution Office 신설. AI DC, UAM 등 AI 솔루션 역량 결집해 글로벌에 맞춰 사업 확장 추진
- Global Solution Tech는 Global Solution Office를 기술적으로 밀착 지원하며 시너지 창출

바디(One Body) 체제로 시너지를 강화해 성장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장에서 AI 솔루션 사업을 전담하는 '톱 팀'도 신설됐다. 새로 마련되는 '글로벌 솔루션 오피스'를 통해 AI 데이터센터(DC), 도심항공교통(UAM), AI반도체, 양자(Quantum·퀀텀), 엑스칼리버(X caliber) 등 AI 솔루션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시장에 맞춰 사업을 확장한다. 여기에 '글로벌 솔루션 테크'를 통해 기술적으로 지원하며 시너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SKT는 이 같은 조직 개편에 힘입어 AI의 수익 창출을 본격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신사들의 AI 수익 창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5G 가입자 확대로 경쟁이 심화한 가운데, 신규 사업자의 등장으로 통신산업 성장세가 둔화한 통신사들은 AI를 중심으로 한 비통신 사업에서 새로운 수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인사를 단행한 KT와 LG유플러스 역시 AI 조직을 신설하고, AI 실무자를 전진 배치하는 등 AI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AI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던 통신사들이 내년부터는 AI 도입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며 "특히 통신사들은 LLM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사업이 확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유진 기자 newjean@

SK온 새 사령탑에 이석희... 배터리사업 '질적 성장' 중책

글로벌 제조업 전문가 내세워
수율 안정화·기술 경쟁력 확보

SK그룹의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SK온 대표이사 사장에 이석희(사진) 전 SK하이닉스 대표가 신규 선임됐다. 지동섭 대표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의 SV(소셜벨류)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로써 배터리 3사 중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2곳의 수장이 교체됐다.

SK이노베이션은 2024년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에서 이석희 전 SK하이닉스 대표를 SK온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이석희 사장은 1990년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로 입사해 인텔, 한국과



학 기술원(KAIST) 전자공학 교수로 거쳐 2013년 SK하이닉스 D램 개발부문장과 사업총괄(COO) 등을 역임한 '반도체 전문가'다. 2018년 말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올라 인텔 낸드사업부(현 솔리다임) 인수를 주도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솔리다임 의장을 맡아왔다.

이 사장은 풍부한 제조업 경험을 토대로 수율 안정화, 기술 경쟁력 확보 등 SK온의 질적 성장을 이끌기에 적임자라는 평가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 대표는 '인텔 기술상'을 3차례 수상하는 등 글로벌

제조업 전문가로서 SK온을 첨단 기술 중심의 글로벌 톱티어(최상위) 배터리 기업으로 진화시킬 인물"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환도 시급한 과제다. SK온은 2021년 SK이노베이션에서 분사한 이후 2년간 적자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와 3분기에도 각각 4762억 원, 861억 원의 손실을 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혜택이 반영되며 분기마다 적자 폭이 줄긴 했지만, 연내 흑자 전환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투자 전략 수정도 불가피하다. SK온은 배터리 후발주자로서 국내외 대규모 투자와 완성차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단기 기간에 몸집을 키워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기차 수요가 둔화함에 따라 완

성차 업체들이 투자 속도를 조절하는 추세다. 포드와 합작한 쉐보레 2공장도 가동 시점을 당초 목표했던 2026년보다 미루기로 했다.

지난달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용퇴를 결정한 데 이어 지동섭 SK온 대표까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배터리 업계의 '세대교체'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는 전기차 수요 둔화뿐만 아니라 저가형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경쟁 확대, 미국 대선으로 인한 IRA 정책 불확실성에 주수 공백기가 더해지며 배터리 기업에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확장 전략보다는 체력을 기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방산은 미래동력… AI·우주 기술 적용 ‘4대 강국’ 도약”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

국제 협력·일자리 창출 등 기여
‘국가 첨단 전략산업’ 지원 약속
네덜란드 순방, 수출 새 기회로
‘반도체 동맹’ 맺어 공급망 확보
성공사례 제시, 범정부 결집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수출 성장세 확대를 위한 지원 계획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7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방위산업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등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방위산업을 ‘우리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할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특히 정부가 앞장서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산 수출은 우리에게 모든 분야의 국제 협력 외연을 넓혀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방산 협력은 원전, 건설, 반도체 등 다른 산업 분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열린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와 연계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 협력은 단순히 완제품 수출을 넘어서 후속 군수지원, 공동연구 개발,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나아가 국방 협력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연구·개발(R&D)의 중심 판교에서 수출전략 회의를 마련한 것은 K-방산의 첨단 기술 기반 성장을 준비하자는 뜻”이라며 “특히 인공지능(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

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1~14일 예정된 네덜란드 순방을 언급한 뒤 “극자외선(EUV) 등 세계 최고의 노광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은 방산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고,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도 마련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는 우주, AI, 유·무인 복합체계,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전략산업 5대 분야 집중 육성이라는 정책 지원을 담았다.

회의에서는 독자 기술개발 투자로 이뤄낸 대기업 수출 성공사례, 정부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성공 사례 등도 공유됐다. 방산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방산업계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군 협업’, ‘범정부 역량 결집’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방산업계에서는 김동관 한화에어

로스페이스 부회장을 비롯해 40여개 산업체 대표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뒤 인근에 위치한 LIG넥스원으로 이동해 20·30세대 청년 방위산업 종사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은 윤 대통령은 “K-방산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면서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며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정당한 처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Buy 바이오”… 생산 23.5兆 ‘역대 최대’

2022년 바이오산업 실태

전년비 9.7%·5년 평균 22% ↑

2018년 11兆→2021년 21兆

수출·인력 규모 가파른 성장세

지난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가 23조4657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과 고용 투자 역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바이오산업의 미래 먹거리로서의 입지를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는 7일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수출입, 고용 및 투자 현황 등을 조사한 ‘2022년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산업부가 한국바이오협회를 통해 전년도 바이오산업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발표하는 국가통계로 국내 1089개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 기술이 기존 의약품과 식품 분야 이외에도 화학 및 에너지 분야 등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드는 바이오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바이오 기술 기반 국내 경제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는 23조46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가파른 성장세다. 연도별 생산

바이오산업 생산규모 (단위 : 억원, %)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생산액	비중	생산액	비중		
의료기기	5조5501	25.9	5조6767	24.2	1267	2.3
의약	5조7760	27.0	5조6303	24.0	-1457	-2.5
식품	4조1529	19.4	4조6524	19.8	4995	12.0
화학·에너지	2조9309	13.7	3조6417	15.5	7107	24.2
서비스	2조6353	12.3	3조4947	14.9	8595	32.6
장비 및 기기	1901	0.9	2033	0.9	132	7.0
바이오자원	928	0.4	945	0.4	17	1.8
바이오환경	691	0.3	721	0.3	30	4.4
합계	21조3971	100.0	23조4657	100.0	2조686	9.7

규모는 △2018년 10조6067억 원 △2019년 12조6586억 원 △2020년 17조1983억 원 △2021년 21조3971억 원 등을 기록, 최근 5년간 연평균 22%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일반의료기기를 제외한 체외 진단 등 바이오의료기기 생산액은 5조6767억 원을 기록, 24.2%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 분야가 5조6303억 원으로 24.0%의 비중을 보였다. 이어 건강기능식품, 발효식품 등 바이오식품 분야가 19.8%, 바이오 연료, 농약, 화장품 등 바이오화학·에너지가 15.5%, 바이오 위탁생산 등 바이오 서비스가 14.9%를 차지했다.

바이오산업은 수출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지난해 기준 수출은 13조51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5% 늘었다. 체외진단기기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의료기기가 전체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바이오 서비스와 바이오식

품, 바이오의약 분야 수출이 각각 전년 대비 93%, 20.1%, 8.6% 증가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수입은 4조24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줄었다. 전체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오의약이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으로 15.4% 줄었으나, 바이오화학·에너지와 바이오 장비 및 기기 분야는 전년 대비 각각 17.4%, 28.2% 증가했다.

바이오산업의 고용 규모는 6만1152명으로 전년 대비 7.8% 늘었다. 최근 5년을 놓고 봐도 연평균 7.1%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직무별로는 △연구직 7.9% △생산직 5.6% △영업·관리 등 기타직 9.7% 증가했으며, 석·박사급 비중이 25.1%로 고급 인력 비중이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바이오 산업 투자 규모는 4조12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2% 늘었고 특히 시설 투자비가 72.8%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文정부, 서해 피살사건 삭제 지시 조직적 은폐·왜곡, 월북으로 몰아”

감사원, 주요감사 결과

안보실·국방부·해경, 생존 알고도 방치
공무원 피살·소각 담긴 비밀자료 지워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생존 사실을 파악해 놓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조기 퇴근하는 등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살·소각 이후에도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 18분경 북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발견된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고도 통일부 등에 위기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 위기상황의 심각성 평가 및 대응 방향 검토 등을 위한 ‘최초 상황 평가회’도 실시하지 않았다. 당시 이 씨는 실종 이후 약 38시간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는 등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는데도 북한은 구조 등의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었다.

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당일 오후 7시 30분경에 퇴근했고, 안보실장과 안보실 1차장은 이보다 일찍 퇴근했다. 해경은 오후 6시경 안보실로부터 발견 정황을 전달받았고 ‘보안 유지’를 사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발견 위치에 대한 추가 정보를 파악하거나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수색구조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 씨의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소연평도 해상에 실종됐다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탑승했던 아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연합뉴스

국방부가 안보실의 지침 하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의 비밀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씨의 발견 사실을 보고받은 다음 날인 9월 23일 오전 1시 개최된 관계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하자 2시 30분경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합참은 3시 30분경 민스(MIMS·군사정보체계) 운용 담당 실무자를 사무실로 나오게 해 군 첩보보고서(보존 기간이 영구로 되어 있는 비밀자료) 60건을 삭제했으며, 이후에도 보안 유지 등을 사유로 사건과 관련해 생산한 비밀자료 123건을 민스 등에 탑재하지 않은 채 삭제했다.

서해 공무원이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이후 국방부 등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 군 첩보에도 없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해 발표했다. 이후 관계 기관은 미확인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9월 29일 2차 중간수사결과에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충동’ 등 수사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월북 동기로 작성해 발표했다.

정대환 기자 vishalist@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본회의 하루 전... 재초환법·기촉법 등 무더기 통과



예산안 '2+2 협의체' 첫 회의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송언석 간사.

NH농협금융

퇴직연금 어떻게 관리하세요?

- ☒ 믿을 수 있는
증권사 최고 신용등급 AA+ (한신평 2023.06.23)
※ 투자광고 시점 및 미래 시점에는 변동 가능
- ☒ 수수료 걱정 없는
IRP수수료 무료 *퇴직금 제외 / ETF, 리츠 매매수수료 무료
※ 펀드 및 상품 보수 등 추가 발생 가능
- ☒ 잘 관리 해주는
연금고객만을 위한 연금자산관리센터 운영
☎1544-6060

NH투자증권에서!

연금이전 이벤트
최대 134만원 혜택까지? 가보자GO!!
이벤트 기간 12.3.10.01~23.12.31



[투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간접)투자설명서, 집합투자계약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치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금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QV IRP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연후납, 상환 수수료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ETF/리츠 매매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보수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ETF/리츠별 상이 상세내용은 각 운용사 홈페이지 참고)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3003(2023.08.04~2024.08.02) ※NH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3-3680(2023.10.27~2024.08.02)

투자, 문화가 된다

NH투자증권

법사위, 금융사 지배구조법
1기신도시 특별법 등 처리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불발
계류 법안 여전히 1695건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열렸다. 8일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함이지만, 여야 모두 정쟁으로 법안 처리를 미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금융사 지배구조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기촉법) 등을 의결했다.

금융사고에서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책무 내역을 기재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채권 금융 기관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 투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신 구조조정을 받아야 하는 '기촉법' 역시 통과됐다. 지난달 15일 5년 일몰을 맞아 효력이 상실됐으나, 이번엔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입법됐다. 기업 부실에 따른 위기가 농성을 최소화하고, 부실 징후 기업의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 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

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시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물 존치와 관련한 검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채권자가 소멸 시효의 만료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현행 민법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법사위에 계류됐다.

이날 법사위에 올라온 안건은 185건이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일 기준 법사위에 계류된 총 법안 수는 1695건이다. 여기에는 정당 현수막 난리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기자 nancho0907@

尹, 네덜란드 국민 방문 “반도체 동맹 집중 논의”

11~15일... 수교 이후 처음
이재용·최태원 회장과 함께
ASML 본사 방문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네덜란드를 국민 방문해 양국의 '반도체 동맹' 구축에 나선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과 박준섭 경제수석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11~15일 네덜란드를 국민 방문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국민이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전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네덜란드 첨단 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사슬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반도체 대화체 신설, 양해각서(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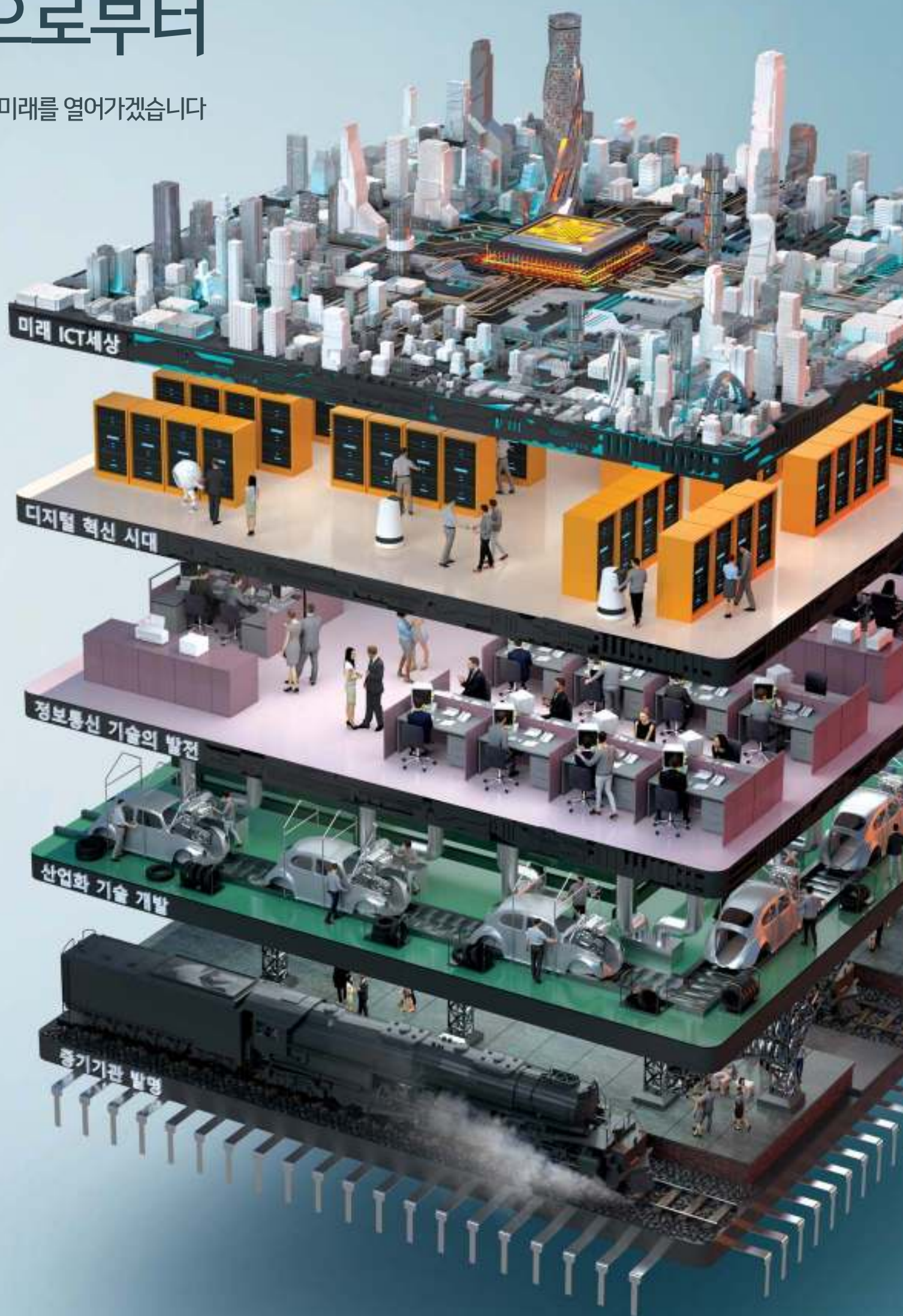
윤 대통령은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남동부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를 방문한다. 내년에 출시될 최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하고, ASML을 포함해 주요 반도체 기업인들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ASML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클린룸'을 외국 정상에게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문명의 진보는 기술의 혁신으로부터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상·하위 소득격차 5.83 ➡ 5.76배… ‘지니계수’도 개선

〈계층간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지난해 저소득층 가구와 고소득층 가구 간 소득 격차 및 소득 분배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평균은 39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0만 원(6.2%) 늘었다.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340만 원으로 76만 원(6.0%) 증가했다. 반면 소득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7722만 원으로 352만 원(4.8%)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소득 등 시장소득과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세금 등 공적이전지출을 뺀 개념이다. 여기에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 불균형을 고려해 만들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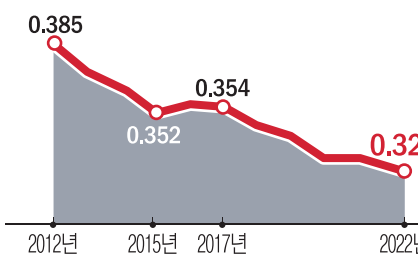
1분위 6% 늘 때 5분위 4.8% ↑ 격차 0.07배p ↓ 2년만에 개선
평균소득 1억 이상 20%… 최대 지니계수 0.324… 0.005p ↓

1분위와 5분위의 소득을 비교해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6배를 기록했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76배라는 의미다. 전년(5.83배)과 비교해 0.07배 포인트(p) 하락했다. 2년 만의 개선이다.

5분위 배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상하위 계층간 소득 격차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도 0.324로 전년보다 0.005p 하락

지니계수
※ 소득불평등 지표, ‘0’ 완전평등 ‘1’ 완전불평등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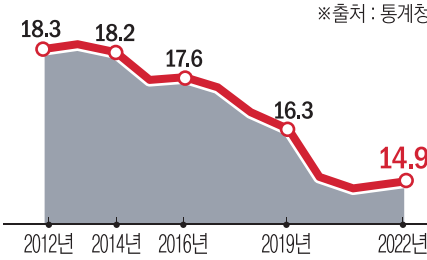


했다.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지원금 감소에도 근로소득 중심으로 1분위 가구 소득이 견조하게 늘어 해당 소득·분배 지표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1분위 가구 총소득은 1405만 원으로 전년보다 4.3%(58만 원) 늘었다. 근로소득(13.9%)과 재산소득

상대적 빈곤율(단위 : %)
※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비율



(12.2%)이 증가한 영향이다. 5분위 가구(3.8%)보다 증가율이 높다. 다만 부문별로는 엇갈린 모습이다. 일하는 연령대(18~65세)의 지니계수는 0.303으로 0.007p 하락했지만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지니계수는 0.383으로 0.005p 상승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도 악화됐다. 지난해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전년보다

0.1%p 늘었고, 은퇴 연령층은 39.7%로 0.4%p 증가했다.

기재부는 “민간 중심의 소득·분배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물가 등 민생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또한 내수·투자·수출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구 평균 소득은 6762만 원으로 전년보다 293만 원(4.5%) 늘었다. 구간별로 가구 소득은 1000만~3000만원 미만이 2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억 원 이상(20.0%), 3000만~5000만 원(19.8%), 7000만~1억 원(17.0%), 5000만~7000만 원(16.4%) 순이었다. 특히 1억 원 이상 가구 비중이 20%대로 올라간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금감원, 불법대부 무효화 소송 지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한다. 금감원과 공단은 7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해 무료 가능성이 높은 사례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에 대출 관련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다. 연합뉴스

홍수 방어 ‘治水예산’ 1.2조 → 2조 대폭 확대

정부, 4대 부문·8대 중점과제 하천 정비 예산 47% 늘리는 등
도심 방어 인프라 구축 속도

정부가 ‘치수 정책’을 전면 쇄신해 홍수 대비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홍수방어 기반 시설 확대 △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 안전 체계 확립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 △치수 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 기반 강화 등 4대 부문, 8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치수 예산은 올해 1조2000억 원에서 내년 2조 원으로 대폭 늘려 댐 건설, 지류·지천 정비 본격화 등 홍수방어 기반 시설을 확대한다. 지류·지천 정비를 본격화한다.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큰 지방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2027년까지 국가하천 구간을 기존 3602km에서 약 4300km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하천 정비 예산을 올해 4510억 원에서 내년 6627억 원으로 46.9% 대폭 늘려 적기에 하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을 ‘배수 영향 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직접 정비할 계획이다.

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의 건의와 유역별 치수·이수 상황을 검토해 내년부터 필요한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신규 댐을 건설하고 저수지 등 기존 댐의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10개 댐 기본 구상을 실시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비 대상인 규모가 작은 댐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집중호우 시 댐·하천 등의 상·하류 상황을 고려한 댐 최적 방류를 지원하기 위해 ‘댐·하천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도 내년 중 구축해 댐 상·하류 지역의 홍수 안전을 강화한다.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도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도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극한 홍수에 대한 방어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낸다. 2028년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지역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설치하고, 도립천과 한강을 잇는 지하 방수로를 건설한다. 2013년부터 추진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원 사업도 올해 1541억 원에서 내년 3256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도시 침수와 관련해선 통상적인 대책으로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 하천을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 국가가 법적 계획에 따라 특별관리하게 된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거나 중요 산업 시설이 있는 지역의 침수 방지시설을 ‘재현기간(빈도) 500년 이상 홍수’를 기준으로 강화한다. 50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큰 홍수까지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바이오 소부장 공급기업 5곳 3000억 투자

샘표 등에 3년간 투자… MOU 체결

샘표 등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기업 5곳이 기술개발 등을 위해 3년간 3000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바이오 소부장 글로벌 공급망 간담회’를 열어 바이오 소부장 국내 투자 상황 및 현안을 점검하고 글로벌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정부는 60개 핵심 품목의 단계적 개발을 위한 ‘바이오 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을 공유했다. 아미코젠, 샘표 등 5개 공급기업은 앞으로 3년간 총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 씨이티바, 씨도피서 등 글로벌 기업의 바이오 소부장 시장동향도 발표했다.

아울러 △샘표식품, 아미코젠 등 공급

기업 △삼성바이오페스, 셀트리온 등 수요기업 △씨이티바코리아, 머크코리아 등 글로벌기업은 바이오 소부장 글로벌 연구개발(R&D) 및 투자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또 이 MOU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 본과가 신설돼 글로벌 소부장 기업도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협의체에 참여한다. 이 협의체는 국내 바이오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간 지속적 협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9월 발족한 민관협력 협의체로,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83개 사의 회원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장영진산업부 1차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재활용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 인하 유도

직업소개소·LNG배관 등 규제개선
적격심사제에 영세업체 진입 난감
최저낙찰제 이용… 가격경쟁 유도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인하 유도를 위해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에 영세업체들도 쉽게 진출할 있도록 규제를 손질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일부 민간사업자에 치우쳐 천연가스배관을 제공하지 않도록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신설해 배관망 운영 중립성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

스, 사물인터넷,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총 22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정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으로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경쟁을 통한 관리비 인하가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재활용품 수거와 같은 단순 용역입찰에도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돼 영세업체 진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가격만 심사하는 최저(최고)낙찰제도를 균형 있게 적용되도록 지침을 개정해 신생업체의 진입을 통한 가격경쟁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했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사무실 면적요건 폐지도 추진된다. 해당 업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10㎡

(유료직업소개업)~20㎡(근로자파견업)의 사무실을 갖춰야 해 상당한 비용 부담이 있었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천연가스배관망 운영의 중립성이 개선된다.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들이 가스공사의 배관망을 통해서만 수입한 가스를 자기의 발전소로 공급할 수 있는데 일부 업체에 치우쳐 배관망을 중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경쟁력이 있는 업체는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제기돼 왔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비제조업체에 적용되는 기존건축면적률(부지면적대비 건축물면적의 비율)도 축소해 건축비 부담을 덜어 준다. 연구개발업의 경우 기존 건축면적률을 20%로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다른 업종의 추가 소요를 파악해 완화를 추진한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빈살만 만난 푸틴…전쟁 중 이례적인 중동 순방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알 아 마마궁에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 만났다. 푸틴 대통령은 “어떤 것도 우리 우호 관계 발전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AFP 통신은 지난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 발부 이후 옛 소련 국가와 중국만 방문했던 푸틴 대통령이 이번 중동 방문을 통해 존재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리야드(사우디)/AP뉴시스

이탈리아, 中 ‘일대일로’ 공식 탈퇴

G7 유일한 일대일로, 성과 적어
獨·佛도 포럼 빠지며 거리두기
美 주도 IMEC에 중동서도 밀려

이탈리아가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한다. 유럽연합(EU) 대표단을 베이징으로 불러 경제 협력을 도모하던 시진핑 국가 주석의 대대적인 경제적 야망도 첫 번째 걸림돌에 직면했다. EU는 물론 다른 국가가 추가 탈퇴할지 관심이 쏠린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파이낸셜타임스(FT)는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 총리가 중국에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총리실은 아직 공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로마의 한 행사장에서 “해당 협정으로 우리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했다.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이 더 나은 성과를 냈다”며 사실상 탈퇴를 인정했다.

앞서 이탈리아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

여하기 위한 투자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은 2019년 발효돼 내년 3월까지 유효한 상태였다. 이탈리아는 이달까지 계약 갱신 여부를 정해야 했고, 고심 끝에 중국과 갈라서기로 했다.

앞서 멜로니 총리가 탈퇴 가능성을 시사했던 터라 이탈리아의 공식 탈퇴는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다만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이탈리아가 일대일로에 가입한 국가였던 만큼, 상징적 의미가 컸다. 나아가 최근 다른 참여국 사이에서도 중국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중국으로선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례로 지난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에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유럽 정상 일부가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서방의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개발도상국이 중국에 막대한 자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경제위기에 처하는, 이른바 ‘부채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 와중에 선진국들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요국 정상들의 포럼 불참은 악화한 관계뿐 아니라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시작한 이후 꾸준히 제기됐던 회의론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공들이고 있는 중동에서도 일대일로의 영향력은 점차 줄고 있다. 미국 주도의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때문이다. 일대일로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IMEC는 각국 철도와 항만을 연결하고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에너지를 교역하는 게 골자다. 과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진짜 빅딜”이라고 소개했고, 칼리드 빈 압둘아지즈 알 팔리흐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장관은 “역사적”이라고 평했다.

일련의 우려를 의식한 듯 시 주석은 7일 베이징으로 EU 사절단을 초대해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했다. 그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유럽은 호혜적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하며 끊임없이 상호 정치적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비트코인 랠리에… ‘공매도 세력’ 올해 60억달러 손실

비트코인 내년 5만달러 전망도

올해 비트코인의 강력한 랠리에 관련 공매도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금융정보업체 S3파트너스는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만 60억 달러(약 7조9542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투자자들이 가장 큰 미실현 손

실을 본 종목은 △코인베이스(약 35억 달러)를 비롯해 △마이크로스트레이지(약 14억 달러) △마라톤디지털(약 5억7000만 달러) △라이언플랫폼(약 4억1000만 달러) 순이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올들어 165% 이상 급등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주식의 상승세를 주도했다. 시장에서는 내년 1월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마저 제기됐다. 규제가 더 명확해지고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곧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관련 종목에 호재로 작용했다. 반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비

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이날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나선 그는 “가상자산과 비트코인 등에 대해 반대해왔다”며 “유일한 실제 사용 사례는 범죄, 마약 밀매, 자금세탁, 탈세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가 정부라면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세상을 떠난 투자계의 전설 찰리 멩거 역시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한 중국을 두고 “그들이 옳았다. 중국인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한 미국이 잘못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변효선 기자 hsbyun@

中 억만장자 2년째 감소 1999년 집계 이후 처음

지난해보다 64명 줄어 1241명
경기 둔화로 부동산 기업가 부진
생수 CEO 중산산 620억 1위

경기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탓에 중국 부호 기업가 수가 2년 연속 감소했다.

매년 기업인 재산 순위를 조사해 중국의 포브스로 불리는 후룬연구소의 후룬바이푸는 최근 중국 부호 1241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부호 기준은 개인 재산 50억 위안, 약 6억 9000만 달러(약 92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가다. 올해 후룬 부호 수는 전년에 비해 5%(64명) 감소했다. 2년 전 정점을 찍었을 때(2918명)보다 57% 줄었다.

2년 연속 후룬 부호 수가 감소한 것은 1999년부터 관련 수치를 발표한 이후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다. 부호의 기준은 물가, 환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니혼케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 부호 순위는 중국 경제의 변화를 시사한다”며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부동산 기업가들이 부진한 데 반해 중국 경기둔화를 피해 글로벌 성장의 물결을 탄 기업가들은 순위와 재산이 뛰었다”고 설명했다.

최고 부호에는 중국 ‘국민생수’ 농푸산취안의 중산산 회장이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개인 자산만 620억 달러(약 82조 원)에 달한다.

뒤이어 소셜미디어 및 게임 대기업 텐센트 창업자 포니 마가 386억 달러(약 51조 원)를 기록해 2위에 올랐다. 3위는 총자산 372억 달러를 소유한 전자상거래업체 핀둬둬(PDD) 콜린 황 창업자가 차지했다. 특히 황

연도별 중국 억만장자 수 (단위 : 명)
※ 자산 50억위안(약 9200억 원) 이상



CEO의 재산은 전년 대비 59%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핀둬둬의 해외 버전인 테무(Temu)가 급성장한 게 주요 원인이다.

지난해 3위였던 배터리 제조사 CATL의 로빈 쟁은 기록적인 배터리 매출에 힘입어 자산이 9% 증가한 344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부호 순위는 한 계단 하락한 4위에 머물렀다. 20억 명 유저가 사용하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의 장이밍 창업자는 재산 337억 달러를 기록, 5위 자리를 지켰다.

부동산 부문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개발 업체 완다그룹의 왕젠린 회장 일가는 가장 큰 폭으로 재산이 감소했다. 왕 회장 재산은 총 73억 달러가 감소해 57계단 하락한 89위에 그쳤다.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 창업자 쉬자인 회장은 회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배당금 지급으로 인해 간신히 268위(28억 달러)를 유지했다. 2019년 그는 재산 순위는 3위였다. 중국 대형 부동산업체 비구이위안 설립자의 딸인 양후이엔 역시 부동산 침체 탓에 2019년 5위에서 올해 86위까지 하락했다.

이진영 기자 mint@

스페이스X ‘최대 1조원’ 비상장 주식 판다

시총 231조원 세계 75위 전망
내년 스타링크 분할 상장 검토

미국 비상장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CEO 일론 머스크·사진)가 기업 가치를 1750억 달러(약 231조 원) 이상으로 평가하고 일부 주식에 대한 매각 논의를 시작했다.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하고 “기존에 평가된 스페이스X의 가치 1500억 달러(약 198조5000억 원)보다 17% 높은 수준이다.

이번 공개 매각은 5억~7억5000만 달러(6600억~1조 원) 규모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이스X가 175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데 성공한다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75번째 기업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스페이스X의 양대 사업인 로켓

발사와 스타링크 사업의 올해 매출이 9억 달러(1조2000억 원)이며, 내년에는 1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난달 전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이 우주개발 경쟁에서 스페이스X가 블루 오리진과 버진 갤럭틱을 압도적 격차로 따돌리며 사실상 적수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우주개발 기업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팰컨9 로켓으로 우주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며 상업용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을 장악했다. 또 전 지구를 인터넷으로 잇겠다는 목표로 시작한 위성 인터넷 사업인 ‘스타링크’를 운영하고 있다. 지구 궤도를 도는 5000개 이상의 위성을 보유하고, 60여개국 고객에게 고속 인터넷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를 이르면 내년 말에 분사 및 상장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영 기자 mint@



中폴더블폰 무서운 추격…삼성 점유율 1년새 ‘14%p 뚝’

3분기 폴더블폰·패널 시장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독주하던 폴더블폰 및 패널 시장에서 중국 업체의 추격이 거세다. 폴더블폰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은 중국 업체와의 일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7일 시장조사기관 DSCC에 따르면 올 3분기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이 전년대비 16%, 전분기 대비 215% 증가한 700만대를 기록했다. 이는 예상보다 1% 높은 수치이며, 이전 최고치인 2022년 3분기의 610만대를 16% 넘어섰다.

3분기 점유율 1위 기업은 삼성전자로 72%를 기록했다. 다만 중국 업체들의 공

전두 삼성 점유율 86%→72%

DSCC “4분기 42%까지 하락

中화웨이 21%·아너 19% 차지”

폴더블 패널 출하량 1위 삼성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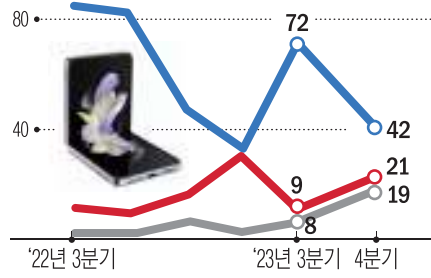
화웨이 업은 BOE가 추월 전망

격적인 제품 출시로 작년 86%보다 14%포인트(p) 줄었다. 화웨이는 9%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으며, 아너가 8%로 그 뒤를 이었다.

제품별로는 예상대로 삼성 갤럭시Z 플립5가 45%, 갤럭시Z 폴드5가 24%의 점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

(단위 : %) ● 삼성전자 ● 화웨이 ○ 아너



※출처 : 시장조사기관 DSCC ‘분기별 폴더블/롤러블 디스플레이 출하량 및 기술 보고서’

유율을 기록하며 가장 잘 팔리는 2개 모델로 이름을 올렸다. 화웨이와 아너는 메이트 X3와 매직 V2로 각각 6%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다만 4분기 삼성전자는 중국 업체에 폴더블폰 점유율을 절반이상 뺏길 전망이다. DSCC는 삼성전자 4분기 점유율이 4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뒤를 이어 화웨이는 21%, 아너는 19%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업체들의 공세는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점유율 상당부분을 중국 BOE 등에 뺏기고 있다.

DSCC가 발표한 3분기 폴더블 패널 출하량을 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74% 점유율로 1위다. 2분기 63%보다도 증가했다. 다만 전년 동기 91%와 비교하면 17%포인트 줄었다. BOE는 점유율 18%로 작년 3분기 4%에서 크게 증가했다.

게다가 DSCC는 올해 4분기 BOE가 삼성디스플레이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웨이가 5G 칩 솔루션을 보유하게 된 만큼 폴더블 시장을 두 배로 확대하게 된 영향이다.

로스영 DSCC CEO는 “올해 폴더블폰 시장에서 화웨이는 기반을 되찾고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했다”며 “구글, 원플러스 등 수많은 신규 진입자가 인상적인 제품 개선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패널 공급업체들이 물량을 늘리면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을 차지했고, LTPO, UTG 등 삼성디스플레이에서만 가능했던 혁신 기술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송영록 기자 syr@

1회 충전에 900km… LG엔솔, 차세대배터리 기술개발

KAIST와 리튬메탈전지 원천기술
리튬이온전지보다 무게·부피 줄여

LG에너지솔루션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동연구팀이 차세대배터리로 주목받는 리튬메탈전지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공동연구팀은 리튬이온전지 대비 주행 거리를 약 50% 늘리고, 충·방전 효율과 수명을 대폭 개선하는 리튬메탈전지 관련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 논문은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네이처 에너지’에도 실렸다.

리튬메탈전지는 흑연계 음극재를 리튬메탈로 대체해 리튬이온전지보다 음극재

의 무게와 부피를 대폭 줄인 배터리다. 에너지 밀도와 주행 거리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 차세대 배터리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기존 리튬메탈전지는 덴드라이트 현상으로 배터리의 수명과 안정성 문제가 있었다. 덴드라이트는 리튬이 음극 표면에 적체되며 나뭇가지 모양의 결정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액체 전해액에 의한 부식 문제도 한계로 지적됐다.

연구팀은 ‘봉산염-피란 기반 액체 전해액’을 세계 최초로 적용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해당 전해액은 충·방전 시 음극 표면에 형성되는 나노미터 두께의 고체 전해질 층을 치밀한 구조로 재구성해 전해액과 리튬메탈 음극 간 부식 반응을 차단한다.

이를 통해 리튬메탈전지의 충·방전 효

율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1회 충전에 900km 주행이 가능할 만큼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 고성능 전기차에 적용되는 리튬이온전지의 주행 거리는 약 600km 수준이다. 400회 이상 재충전이 가능할 만큼 수명 안정성 확보도 가능하다.

또한 전고체전지와 달리 구동 시 높은 온도와 압력이 요구되지 않아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높이기 위한 간소화된 전지 시스템 설계 역시 가능하다.

이번 연구는 LG에너지솔루션과 KAIST가 차세대 리튬메탈전지 관련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2021년 설립한 공동연구센터 ‘FRL(Frontier Research Laboratory)’이 약 2년간 연구를 이어온 끝에 거둔 성과다. 김민서 기자 viajeportune@



볼보 차세대 프리미엄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 ‘EX30’.

사진제공 볼보자동차코리아

프리미엄 전기차의 대중화… 볼보 ‘EX30’

사전예약 이틀만에 1000건 돌파
글로벌 3대 ‘올해의 차’ 후보에
4000만원대 가격에 ‘안전+성능’

볼보자동차코리아(이하 볼보)는 신규 출시하는 차세대 프리미엄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X30’이 사전 예약이틀 만에 1000건을 넘겼다고 7일 밝혔다.

EX30은 전기차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4000만원대 가격이다.

‘2024 유럽 올해의 차’를 포함해 ‘2024 북미 올해의 차(NACTOY)’의 SUV 부문인 올해의 유틸리티, ‘2024 월드 카 어워즈’의 세계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동시 선정되는 등 글로벌 3대 올해의 차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볼보 EX30은 프리미엄의 대중화를 모토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개발된 모델이다. 프리미엄 순수 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해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요소가 전기화 시대를 만나 완성된 새로운 패밀리 리눅과 스칸디나비아 5인승 SUV의 혁신적인 공간 설계 △직관적인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HMI)가 적용된 차세대 티맵(TMAP) 인포테인먼트 △도시 안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안전한 공간 기술 등 플래그십 모델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안전은 옵션이 될 수 없다’는 볼보의 안전 철학에 따라 안전한 공간 기술로 새롭게 명칭 되는 볼보자동차의 표준 안전 기술이 대거 탑재됐다.

운전자 정보 시스템, 차세대 파크 파일럿 어시스트, 문 열림 정보 등이 새롭게 적용됐다. 이 밖에 △파일럿 어시스트 △교차로 자동 제동 기술 △도로 이탈 완화 △후진 시 지속 자동 제동 등 플래그십 수준의 첨단 안전 사양이 기본으로 적용됐다.

주행 성능도 뛰어나다. EX30은 1회 충전 시 최대 475km(WLTP 기준) 주행이 가능한 후륜 기반의 싱글 모터 익스텐디드 레인지를 탑재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한다. 여기에 업계 최고 수준의 5년 또는 10만km 일반 부품 보증 및 소모품 교환 서비스 등을 기본 제공한다.

볼보는 트림별로 각각 4945만 원(코어), 5516만 원(울트라)의 가격을 책정했다. 이민재 기자 2mj@

협동로봇이 상자 쌓고, 튀김요리 척척… 생산성 극대화

두산로보틱스 수원공장 가보니

인력난 해소·품질 안정화 해법
SW 중심 생태계 ‘다트 스위트’
개발자·사용자 편의성 확대

산업계 전반에 인력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인력난 해소, 품질 안정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협동로봇이 주목받고 있다. 협동로봇은 작업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운영되는 기존 산업용 로봇과 달리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로봇이다.

5일 두산로보틱스의 경기 수원시 생산공장으로 들어서자 15명 남짓한 근로자들이 제전복과 안전모를 갖춘 채 분주하게 협동로봇팔을 조립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생산공장보다 규모가 작지만 DPS(Digital Picking System)를 적용해 연간 2200대 규모의 협동로봇을 생산할 수 있다.

김대근 두산로보틱스 오퍼레이션 팀장은 “제품을 출하하기까지 총 13시간, 17번에 걸친 테스트를 진행하며 향후 연간 생산 능력을 4000대까지 늘릴 계획”이라며 “품목 기준 90% 정도 국산화율을 달성했고 앞으로 우리나라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레이저용접 솔루션 모습.

사진제공 두산로보틱스

중소기업들과 국산화 부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산로보틱스는 첫 모델인 M시리즈를 개발한 이후 생산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에 초점을 둔 가장 빠른 라인업인 A시리즈, 최대 25kg로 당시 가장 무거운 가반하중을 지닌 H시리즈, F&B에 특화된 E시리즈 등 13종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생산 효율성과 규모 확대를 위해 수원공장 2층에 자동화셀 설비를 구축할 방침이다. 자동화셀에 자율이동로봇(AMR)을 접목해 물류 자동화도 추진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A시리즈로 만든 치킨을 시식해보는 등 이색 경험을 체험하기도 했다. 사람이 조리한 음식과 맛

과 비교해보기 위한 것으로 시식자들 사이에서 ‘맛있다’는 평이 쏟아졌다.

소프트웨어 혁신도 속도를 낸다. 두산로보틱스는 10월 스마트폰과 유사한 사용 환경을 제공해 개발자, 사용자 모두가 협동로봇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생태계 ‘다트 스위트(Dart Suite)’를 출시했다.

해외 영업·마케팅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텍사스주 플라스 지역에 북미법인을 설립했으며, 2024년에는 독일에 유럽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새로운 지역 진출을 검토하고, 현재 100여 개인 해외 판매 채널을 2026년까지 219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원=이동욱 기자 toto@



더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원하신다면?

★ 양방향 문자 하나면 쓰던 사무실 번호로
고객과 소통을 더 편리하게!

문자도 사진도 실시간으로 주고 받고, 받은 답변은 알아서 데이터로 정리까지!
이제, 사용하던 사무실 번호 그대로 손쉽게 문자업무 하세요

메시징DX
양방향 문자 서비스



양방향 문자 | kt enterprise
KT 화선 사용자 대상 서비스입니다.



문의처 080-258-0303
enterprise.kt.com

수원특례시 포함 240여개 지자체 및 기업 도입 중 (2023.11월 기준)



“반년 새 6억↑”...매매 약세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는 ‘역주행’

〈도곡동 ‘타워팰리스’ 174㎡형〉

집값 하락 전환 매매거래 감소
실수요자들 전세시장에 몰려

강남 고가 단지뿐만 아니라
강북·중소형도 전셋값 들썩

내년 서울 입주물량 감소 예상
전셋값 상승세 당분간 이어질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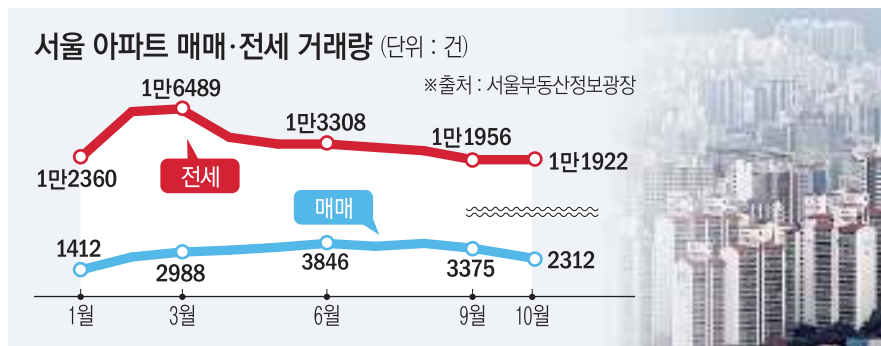
전국 아파트값이 내림세이지만, 서울 핵심단지 전셋값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집값 약세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심리가 빠르게 냉각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전세시장으로 대거 몰린 탓이다. 이때문에 매매량은 10월 이후 급감했지만, 전세 거래량은 같은 기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수요 쏠림 현상을 보인다. 여기에 내년 서울 내 입주 물량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분간 전셋값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

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174㎡형은 지난 2일 전세보증금 30억 원에 계약을 썼다. 이는 직전 신규 전세계약 기준으로 4월 24일 거래된 전세보증금 24억 원 거래보다 6억 원 비싼 수준이다.

강남지역 내에선 고가단지뿐만 아니라 중소형 단지도 전셋값이 들썩이고 있다. 강남구 ‘역삼2차아파트’ 전용 59㎡형 역시 지난달 30일 보증금 8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는 직전 전세보증금 실거래가 수준인 7억~7억5000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오른 규모다. 8억 원대 전세 계약은 지난해 2월 8억4000만원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아울러 강북지역에서도 아파트 전셋값 강세가 이어졌다.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한신더휴’ 전용 59㎡형은 5일 5억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까지 4억5000만 원대에 같은 평형 전세 실거래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5000만 원 올랐다. 이렇듯 최근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전



셋값은 지역과 평형에 상관없이 모두 상승세다. 보통 매맷값이 약세를 보이면 전세 물건이 쌓이면서 거래량이 줄기 마련이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선 오히려 전셋값은 오르고 거래량 감소도 없다시피 한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12월 첫째 주(4일 기준) 기준 0.14% 전셋값 상승을 기록했다. 서울 전셋값 상승은 지난 5월 22일 0.01% 상승을 시작으로 이번 주까지 28주 연속 올랐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29주 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전셋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다.

거래량도 매매시장과 달리 큰 변동이 없다. 이날 서울부동산광장 기준 9월 전세 거래량은 1만1956건. 10월은 1만1922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신고기한(거래 후 30일)이남은 11월 전세 거래량은 이날 기준 8982건으로 단순 계산하면 10월 거래량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반면 매매량은 9월 3375건에서 10월 2312건으로 1000건가량 줄었다.

이런 전세 강세는 매맷값 약세에 따른 매수 관망세가 전세 선호로 이어졌고, 여기에 중저가 단지 전세는 빌라 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선호도가 더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로 풀이된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전세시장은 고가전세뿐만 아니라 중저가 단지까지 수요가 늘고 있고, 중저가 전세마저도 부담스러운 실수요층은 빌라 전세 대신 보증부 월세를 선호하는 상황”이라며 “전세물건도 많이 늘었지만, 최근 전세 수요가 늘어난 만큼 임차인이 전세 호가를 내리지 않으면서 전셋값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역대 최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전셋값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21가구로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서 대표는 “전세임대 호가와 임차 호가 사이의 간극이 이어지고 내년 입주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전셋값은 당분간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서울 아파트값 29주 만에 하락 전환

-0.01%...전국은 2주째 내림세

서울 아파트값이 29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지난주 보합(0.0%)을 기록한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하락을 기록했다. 전국아파트매맷값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인 -0.01%를 기록했다. 전셋값은 매맷값 약세 영향이 계속되면서 전국과 서울 기준 모두 전주 대비 상승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 5월 15일 기준 -0.01% 기록을 끝으로 27주 연속 올랐다. 이후 11월 27일 기준으로 보합 전환됐

고, 이번 주 하락 반전했다.

서울내지역별로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약세가 포착됐다. 이번 주 서초구는 -0.01%, 강남구는 -0.05%, 송파구는 보합을 나타냈다. 강동구는 지난주보다 0.01%포인트(p) 하락한 0.01% 상승으로 집계됐다. 용산구 역시 지난주보다 0.03%p 하락한 0.02%로 조사됐다. 이 밖에 성동구는 0.05%, 동대문구 0.04%, 광진구 0.03%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인천과 경기지역의 약세도 계속됐다. 인천은 이번주 -0.05%, 경기는 -0.01%를 각각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인 -0.01%를 기록했다. 지난주 하락(-0.01%)을 기록한 뒤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정용욱 기자 dragon@

한화, 영어교육도시 품은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분양

한화건설부문이 제주서귀포시대정읍에 조성되는 대단지 아파트 ‘포레나 제주에듀시티’(사진 조감도)를 분양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서귀포시대정읍 보성리 일원에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전용면적 84~210㎡, 총 50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중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됐다.

단지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제주 내 신흥부촌으로 떠오른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제주(SJA), 노스런던칼리지에잇스쿨제주(NLCS), 브랜섬홀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 등 4개의 국제학교가 개교한 상태다. 또 영어교육도시 내 주요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 대표 프리미엄 리조트 ‘제주신화월드’와 대정하마로마트를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다. 약 7km에 달하는 공원 탐방로가



조성된 꽃자왈 도립공원, 사계해안 등의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고, 블랙스톤CC, 테디밸리CC 등 레저시설도 가깝다.

가구별 특화설계도 돋보인다. 전용 84㎡는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주방은 대면형 아일랜드를 설치했다. 전용 99㎡A 역시 4Bay 판상형으로 넓은 드레스룸에 방 4개를 갖췄다.

분양가는 전용84㎡ 기준 약 6억7000만 원이다.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금융혜택이 제공된다. 또 발코니 확장 무상제공,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무상옵션 등 혜택도 적용된다.

한진리 기자 truth@·사진제공 한화 건설부문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당신은 항상 웃을 수 있게

**겪어보면 다른 보험
현대해상**

마음이 합니다

H 현대해상

‘금융위기’ 폭탄 우려에도 ‘은행 옥죄기’만… 불안한 금융권

내년 금융산업 둔화 전망

“지금이야말로 호황기도 아니고 2금융권을 중심으로 위기가 잔존하는데 상생금융이나 황재세로 압박해 여유 자산을 거둬들이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금융권 관계자)

“3분기 기준 저축은행 업계 적자 규모만 1000억 원이 넘는다. 조만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권과도 상생금융 간담회를 할 것 같은데 업권이 워낙 비상인 터라 당국과 만나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한 저축은행 관계자)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밀어붙이는 ‘상생금융’이 내년 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부정적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도 금융시장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총당금 적립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다 상생금융에 상당한 금액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일각에서는 경제 침체 그늘이 짙어지는 비상 시기에 내부 리스크 대응 준비보다 정부 입맛에 맞는 ‘상생안’ 마련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불안

저성장·고금리 장기화 여파

연체율·부동산PF 등 리스크 큰데 당국, 상생금융·황재세 압박 거세 “비상상황 대비 머리 맞댔을 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7일 은행연합회 및 20개 은행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무진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은행별 분담 기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은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에서 미팅을 마무리했으며 앞으로 매주 1회 씩 만나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정확한 상생금융 지원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국과 시장에서는 정치권에서 도입을 논의 중인 ‘황재세’ 법안과 맞먹는 2조원 수준 선에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금융권 내부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목소리가 팽배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역할 중 하나가 금융시스템



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벌어들인 돈을 위기 때 풀어야 하는 게 은행인데 단순히 수익을 많이 냈다고 상생금융이나 황재세로 거둬들이면 금융시장 위기 때 은행에 금융시스템 유지를 위한 역할을 요구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실제 내년 금융시장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국내 금융산업, 순항할까’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내 금융산업은 저성장 및 고금리 장기화로 업황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부동산 프로젝트

해 연체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 역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증권사는 위험 수위다. 본 PF 대비 안정성이 낮은 브릿지론 비중은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이 58%로 가장 많았고, 캐피탈사가 39%, 증권사 33% 순이었다. 은행·보험업계가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PF를 취급한 반면, 저축은행은 미분양 우려가 높은 고위험 사업장이나 부실우려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규모가 큰 것이 문제다.

문제는 이처럼 업황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데도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최근 2년간의 수익성을 거론하며 상생금융 강화와 황재세 압박 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에는 상생금융안을 만드느라 고민하고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차라리 ‘황재세’를 부과하라는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며 “내년도 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위기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은행권 옥죄기’보다 리스크 대비를 위해 머리를 맞댔 때가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김주현 “중견기업 성장 위해 정책지원 늘릴 것”

중견기업 현장방문·간담회 열어 매출채권 유동성 확보 지원 계획 대표들 “정책금융 확대 필요” 건의

“중견기업의 성장이 있어야 중소기업도 동반성장할 수 있고, 대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부산 해운대구 예비중견기업 퓨트로닉을 찾아가 ‘중견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퓨트로닉, 범한제약, 비에이치아이, 한국특강, 삼원약품, 오리엔탈마린텍 등 부산·경남 지역 중견기업 6개사 대표와 산업통상자원부,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IBK기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견기업 대표들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과 공급망 불안정, 우수인력 확보와 인건비 부담 등을 최근 경영여건상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언급했다. 이들은 향후 중견기업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신산업과 해외로 적극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진 정책금융이 중견기업 지원까지 확대될 필요가



김주현(앞줄 맨 오른쪽) 금융위원장이 7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예비중견기업인 퓨트로닉에서 열린 ‘중견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있다고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기업 수로 보면 1.4%에 불과하지만, 매출액, 고용, 수출에서 15% 내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소재·부품·장비를 주로 생산하며 대기업의 공급처이자 중소기업의 수요기업으로 우리 산업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우량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은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신보 보증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최대 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조금 더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채권담보부증권(P-CBO)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던 매출채권 유동화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유동성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중소·중견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영 기자 lly0403@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지속

“요율주기 5년→3년 조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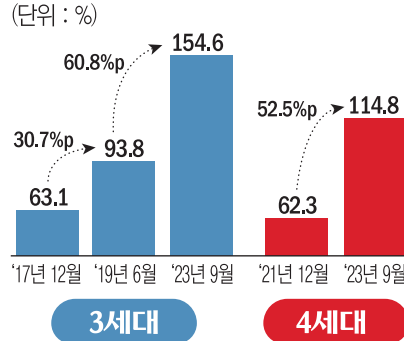
보험研 “비급여 가이드라인 마련을” 김대환 교수도 건보 개선방안 제시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손보험 신상품의 최초 요율 조정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서울 광화문 코리안리에서 열린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고령화로 인해 향후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할 것”이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시했다. 예컨대 물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중식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의 평균가격 등을 고려한 각 항목의 통일 1회당 한도 설정은 과잉의료를 방지할 수 있다. 물리치료의 부담보 또는 보장제한 특약 신설 시 담보설정에 따른 보험료 할인, 과잉의료 방지를 통한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분산하고, 손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신상품의 최초 요율 조정 주기를 현행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비교



5년에서 3년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적인 재정투입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관리에 소홀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담보상 태이며, 의료비 중 자비 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와 그리스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보건의료체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요(환자)가 아닌 공급(의료기관)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의 비대칭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공급 측면에서 답을 찾지 않는다면 결국 의료비·보험료의 급증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연 기자 sjy@

“하나원큐로 모임회비 관리하세요”

하나銀 ‘모임통장서비스’ 출시

하나은행은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를 통해 모임원 모두가 회비를 직접 보고 관리할 수 있는 ‘모임통장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모임통장 서비스는 새로운 통장 발급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통장에 모임 기능만 연결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서비스로, 총무(모임장)가 모임을 만들고 모임원을 초대하면 회비 내역

을 모임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회비 납부일 자동 알림 기능과 함께 회비를 미납한 모임원에게 미납 사실을 자동 통보해줘 총무가 직접 회비를 요청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등 회비 관리의 편의성도 강화했다.

차별화된 포인트로 ‘총무 변경’ 기능이 추가됐다. 총무가 모임원 중 한 명에게 총무 변경을 요청하면 모임원의 동의를 거쳐 새로운 총무가 선정된다. 새로운 총무



는 기존에 사용중인 본인 통장에 모임 기능을 연결해 총무가 될 수 있다. 총무를 변경해도 기존의 회비 거래내역은 그대로 유지되며 모임 고유 계좌번호의 변경이 없어 회비 납부의 연속성도 유지된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KB금융 홈페이지 새단장

고객 편의성·콘텐츠 강화

KB금융그룹은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과 홈페이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그룹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홈페이지는 PC, 모바일, 태블릿PC 등 디바이스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개발해 사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반응형 웹’이란 웹의 해상도, 레이아웃 등 기기의 스크린 환경에 따라 반응해 유동적으로 변화되는 웹페이지를 말한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심사는 중학개미... ‘포스트차이나’ 인도로 머니무브

국내투자자 中증시 이탈 가속

“구조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전향적 혹은 대규모 정책전환이 없다면 중국 경제의 정체 현상이 장기화될 여지가 커 보인다.”(하이투자증권)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인도 주식 시장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 인도 주식 시장이 3년 안에 5조 달러(약 592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골드만삭스)

중국 증시에 위태로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부채 리스크, 내수 부진 장기화, 글로벌 자금의 엑소더스 등에 경기둔화 우려가 커졌다. 중학개미(중국 및 홍콩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중국 투자금은 줄고 있다.

반면, 인도 증시는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중국을 대신할 신흥국 시장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머니무브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등진 자금, 인도로=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0년 29억2800만 달러(약 3조8500억 원)였던 중국 주식 보관금액은 올해 10억8000만 달러(약 1조4000억 원)로 쪼그라들었다. 국내 개인투자자만 중국증시에서 돈을 빼는 건 아니다.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누적 대(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9870억 위안(약 177조

경제·시장 신뢰 바닥 추락하며

중주식 보관액 3년새 63% ‘뚝’

印증권시장 시총 4兆달러 돌파

IPO건수는 세계 5위 홍콩 추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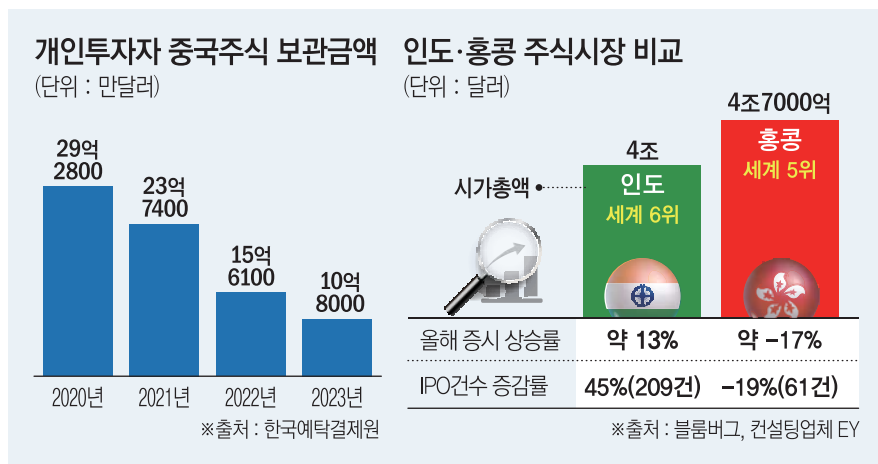
금융당국, 외국인 직접투자 추진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신흥국 주식펀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경제 회복 지연으로 신흥국 주식펀드 내 비중이 2020년 이후 계속 줄어 들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29.4%였던 신흥국주식펀드 안에서의 중국 비중은 올해 9월 말 22.6%까지 줄었다. 외국인의 중국 증시 이탈은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올해 4% 하락했고, 홍콩 항셍지수는 17% 떨어졌다.

중국 경제와 시장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탓이다. 무디스는 올해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약 5%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2026~2030년에는 평균 3.8%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빈자리는 인도가 메우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인도 증시에서 150억 달러(약 19조7000억 원) 이상 순



매수했다. 국내 자금도 200억 달러(약 26조2000억 원) 이상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인도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투자규모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국내 상장 인도 관련 ETF는 △KOSEF 인도Nifty50(합성) △TIGER 인도니프티50 △KODEX 인도Nifty50레버리지(합성) △TIGER 인도니프티50레버리지(합성) 등이 대표적이다. KOSEF 인도Nifty50(합성)의 순자산총액은 연초 620억 원에서 현재 1910억 원으로 급증했다. TIGER 인도니프티50은 운용자산 규모도 1710억 원에 달한다. 수익률도 안정적이다. 올해 수익률도 각각 15%, 32%에 달한다.

◇뜨는 포스트차이나 인도=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인도’가 기회의 땅이 될지

다. 성장세만 보면 답은 “그렇다(Yes)”다.

인도는 포스트차이나로 주목받는 곳이다. 인도는 올해 초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가 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가로 떠올랐다. 여기에 기업들의 높은 이익 증가율, 적극적인 정책 지원, 미국과의 연대 강화, 글로벌 탈중국화의 수혜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모빌리티 수요가 폭발적이다. 10월 인도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고, 인도의 10월 항공유 수요는 44개월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인도 휘발유 수요는 2019년 대비 22%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인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GDP 기

준 2007년 당시 중국과 유사하며 인구구조, 지정학적 요인, 정책 지원(제조업·신재생·디지털화) 관점에서 향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률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증시도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 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최근 3년 새 1조 달러가 불어나 4조 달러(약 5250조 원)를 돌파했다. 세계 5위 홍콩 증시 시총은 4조7000억 달러(약 6200조 원)다.

인도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 건수는 이미 홍콩 거래소를 추월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EY에 따르면 뭄바이 국립증권거래소와 뭄바이증권거래소의 올해 IPO 건수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209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올해 홍콩거래소 IPO 건수는 61건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중국 선전거래소(126건), 상하이거래소(99건)의 IPO 건수도 인도에 못 미쳤다.

막혔던 직접투자 길도 열릴 전망이다. 최근 인도 금융당국이 외국인 개인 투자자에게 길을 터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선 미래에셋증권이 첫 스타트를 끊을 것으로 전망된다. 15년 전 인도에 진출한 미래에셋증권은 인도 주식 거래 서비스를 위해 인도 당국과 긴밀하게 소통 중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中신용 전망 하향에... 옆친 데 덮친 홍콩 ELS 개미

中경제악화 시 홍콩 금융시장 악영향
증시 추가하락하면 H지수 ELS 위험

“지하 5층(주가 5000포인트)’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바닥에 구멍이 뚫린 느낌이다.”

투자 정보를 교환하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불안감을 호소하는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자산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홍콩 H지수가 폭락하면서, 수익률이 주가지수에 연동된 ELS의 손실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6일(이하 현지시간)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홍콩과 마카오, 중국 국영 기업과 국영은행들에 대해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은 투자자들을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

노후 자금을 ELS에 투자한 장종훈(69) 씨는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 몇 해 전부터 ELS 투자를 늘렸는데, 이렇게 날개 없는 추락을 할 줄 몰랐다”며 “안전하게 연 5~6%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라고 생각했는데, 원금을 건지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신용등급 전망 하향에 대해 홍콩과 마카오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에 따라 중국과 긴밀한 정치적, 제도적, 경제



미국 뉴욕 맨해튼의 무디스 본사. 맨해튼(미국)/로이터연합뉴스

적, 재정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본토의 경제 악화는 금융 중심지

인 홍콩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성장 둔화는 홍콩 정부의 재정적 완충 장치도 약화할 수 있을 것으로 무디스는 보고 있다.

홍콩 H지수 기초자산 ELS의 부실위험도 더 커졌다. 홍콩 H지수는 중국 본토 기업이 발행했지만, 홍콩거래소에 상장해 거래되고 있는 주식(H-Shares) 중 시가총액, 거래량 등 기준에 의해 분류한 지수다.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40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21년 초엔 1만2000선에서 거래됐던 지수가 현재는 5500~5600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판매 잔액은 20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최철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해외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홍콩 증시 충격은 중국 본토보다 클 수 있다”면서 “신용등급 전망 하향에 이어 최근 미국 하원에서 홍콩사무소 폐쇄법 통과와 대만 선거 불확실성 확대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각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

스팩상장 10곳 중 8곳 추정실적 미달... 금감원 “제도개선”

영업이익 미달 비중 84% 달해
공시 강화·상대가치 활용 추진

스팩(SPAC)상장 기업인 바이오기업 A사는 특정 질환 관련 치료제 개발을 통해 향후 143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임상시험 등이 지연되면서 매출발생 예정일이 1년 이상 지난 후에도 관련 매출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스�팩상장 기업인 B사는 콘텐츠 관련 수주 진행 중인 모든 건에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 해당 사업부 매출만 346억 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수주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면서 실제 매출액은

추정치의 10분의 1 수준인 35억 원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이 미래 영업실적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하는 등 기업가치(합병가액) 고평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스�팩합병을 통해 상장한 139개 스�팩상장 기업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평균 매출액 추정치는 571억 원이나 실제 매출액은 평균 469억 원으로 추정치에 17.8% 못미쳤고, 영업이익 역시 평균 추정치는 106억 원이나 실제치는 44억 원으로 58.7% 미달했다.

매출액 미달 기업 비중은 76.0%, 영업이익 미달 기업 비중은 84.1%로 대다수 스�팩상장 기업이 추정치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향후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스�팩상장 기업 외부평가이력 △외부평가업무 외 타 업무 수입내역 등을 증권신고서 공시항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스�팩상장 기업 영업실적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 차이 발생 사유 등 사후정보를 공시되도록 작성양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비교군이 없어 적정성 파악이 어려운 현금흐름할인법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사기업 재무지표와 주가를 비교해 산출하는 상대가치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민규 기자 pmk8989@



배부열(뒷줄 왼쪽 네 번째) NH투자증권 부산지점 6일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서 진행된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서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NH투자증권

NH證, 영등포 쪽방촌에 ‘사랑의 연탄 나눔’

NH투자증권은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서 겨울나기 지원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배부열 NH투자증권 부산지점장과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탄나눔 행사에는 코로나 종식으로 배 부사장과 임직원들이 쪽방촌을 찾아 연탄 3000장과 김치(3kg) 300박스를

직접 배달했다. NH투자증권은 여름에는 삼계탕, 겨울에는 연탄 및 필요 물품 등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원된 물품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회공헌 기금으로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NH투자증권은 대표이사 직속의 사회공헌단을 갖춰 체계적으로 지역사회 나눔 경영에 나서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KB 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얼어붙은 마음이 녹았습니다

“은행은 저에게 대출상담 과정에서
인망함과 좌절감을 가져다 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 마음을 열게 해준 분이
'화성남양지점 홍태준 부지점장님' 이십니다.
백혈병으로 투병하는 딸의 병간호로
장사를 그만두고 지쳐 있는 저에게
'기운 내세요. 좋아질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의 빗장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이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납니다.
살면서 은행 대출 창구에서 이런 진심 어린 말을 듣거나
따뜻함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부지점장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셔서 국민들에게
든든한 힘과 희망을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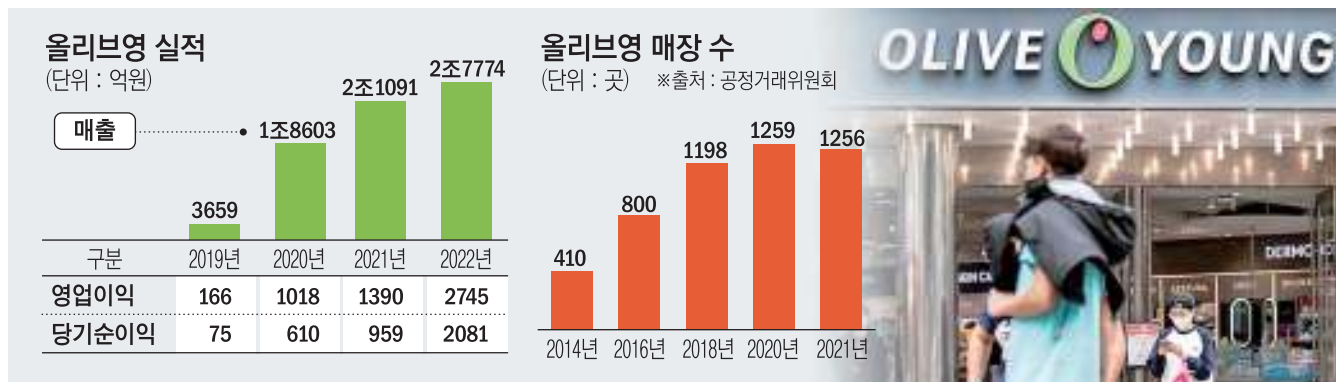
편지를 보내주신 남성은 고객님의 감사합니다.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따님의 치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께 진심을 다하는 KB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 IPO 재도전 나선다

행사독점 강요·정보처리비 ‘갑질’
공정위, 19억 과징금에 법인 고발
시장지배적 지위는 불확실 판단
올리브영 “문제점 이미 개선 완료”
내년 상반기 상장 재추진 가능성

납품업체에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은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이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약 19억 원의 과징금을 받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당초 이 사건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6000억 원으로 추산됐기에 비록 제재는 받았지만 선방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엔데믹으로 올리브영은 내년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에 공정위 리스크를 탈면서 증시 상장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리브영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법인 고발도 결정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올리브영은 납품업체에 자사 판촉 행사에만 참여하도록 강요하고



정보 처리비를 부당 수취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던 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정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정위는 ‘심의 절차가 중요’했다. EB 정책은 경쟁사인 탈라블라, 립스 등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 광고비 인하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올리브영이 헬스&뷰티(Health&Beauty)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앞세워 납품업체에 갑질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이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하려면 H&B 시장에서 올리브영 점유율

이 독보적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공정위는 당초 오프라인 매장만 보고 올리브영을 1위 사업자로 규정했다. 그러자 올리브영은 온라인까지 H&B 시장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프라인만 보면 올리브영의 점유율이 70%가 넘지만 온라인을 포함하면 급감해 시장지배적지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의 1심 기능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최근 10년 간 화장품 유통 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어 관련 시장을 더욱 넓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사실

상 올리브영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결론으로 앞으로 유통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온라인 등 판매 채널이 다양해진 것은 맞지만,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중소 규모 납품업체들에는 여전히 강력한 갑의 지위이기 때문이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 또한 최근 협력사를 대상으로 타 플랫폼 입점 제한 등 부당 계약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올리브영의 EB 정책과 비슷한 납품업체 갑질이 암암리에 성행 중인데 이에 대한 견제 역할을 공정위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은 이에 대해 “공정위는 매년 법 위반 행위 수집 등을 목적으로 유통업체의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 또 익명제보 시스템이나 옴부즈맨 제도 등을 통해 제보를 계속 받고 있다”며 “이런 수단들을 통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리스크를 턴 올리브영은 상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하반기를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준비했지만 증시 침체에 공정위 이슈까지 겹치며 보류했다. 엔데믹으로 내년 실적이 고공행진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IPO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리브영은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 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kiy42@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식료품 매장 늘리고 체험 콘텐츠 강화 대형마트 ‘공간 혁신’ 승부수

실적 침체에 빠진 국내 대형마트 3사가 ‘공간 혁신’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생활용품 대신 그로서리(식료품)와 테넨트(입점 점포)를 확대하는 게 핵심인데, 쇼핑물 형태로 변화해 고객을 확보하고 체류시간을 늘리겠다는 포석이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는 인천 연수점을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2.0(이하 메가푸드마켓)으로 세단장했다. 메가푸드마켓은 식품 전문 매장에 고객 빅데이터를 적용해 매장 구성을 개선한 점포다. 메가푸드마켓 연수점은 가족 단위 고객이 많은 지역 상권 특성에 맞춰 베이커리·델리 코너를 매장 입구에 전면 배치했다. 또 고객 선호와 트렌드를 반영한 입점 점포를 확대했다. 내년 4월에는 일본 가구 업체 니토리 매장도 들어선다.

홈플러스는 메가푸드마켓을 성장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리뉴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24개의 점포를 메가푸드마켓으로 전환시켰는데, 리뉴얼 2년차 점포의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25% 신장했다.

이마트도 올해 점포 리뉴얼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마트는 3분기까지 이마트 더타운을 연수점·킨텍스점을 비롯해 최근 하월곡점까지 총 12개의 점포를 리뉴얼했다. 직영 매장 면적을 줄이고 입점 점포 면적을 늘리는 게 이마트의 리뉴얼 전략이다.

대신 이마트는 식료품과 체험 요소를 강화했다. 연수점은 실내 스마트팜, 축산 속성 전용 쇼케이스, 참치 정육점 등 볼거리를 늘렸고, 킨텍스점은 만화카페, 골프

아카데미, 필라테스 등 체류형 콘텐츠를 강화했다. 그 결과 킨텍스점의 10~30대 고객 비중은 리뉴얼 전 대비 4.9%포인트 늘어난 31.7%로 나타났다.

롯데마트 역시 식료품 매장 확대, 상권 맞춤형 비식품 콘텐츠 강화를 주요 리뉴얼 전략으로 내세웠다. 현재까지 동래·제타플렉스 서울역·중계·부평·구미점 등 총 5개 점포의 리뉴얼을 완료했고, 올 연말에는 롯데마트 은평점이 ‘그랑 그로서리(Grand Grocery)’로 세단장한다. 그랑 그로서리는 매장 전체 상품의 90%를 식료품으로 채운 콘셉트 매장이다.

내년에는 롯데마트가 실험 중인 제타플

렉스 매장 리뉴얼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타플렉스는 롯데마트의 플래그십 브랜드로 현재 잠실점, 서울역점만 두 곳만 운영 중이다. 식료품 등이 일반 매장보다 30% 이상 많고, 체험형 콘텐츠를 극대화한 매장인데 리뉴얼 후 실적도 긍정적이다.

롯데쇼핑에 따르면 9월 제타플렉스로 문을 연 서울역점의 오픈 후 약 두 달 간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늘었고 고객수도 40%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국내 대형마트 3사의 리뉴얼 전략이 공간 혁신에 방점이 찍힌 배경은 쇼핑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된 탓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전환 속도를 더욱 가속화했다. 집에서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를 오프라인으로 나오게 만들고, 이들이 매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간 혁신을 통한 식료품·입점 점포 강화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유승호 기자 peter@



신세계백화점 “나주 신고배 생과일잼 맛보세요”

신세계백화점이 2주 이내 생산한 생과일잼 ‘바로 잼있다’를 8000원에 판매한다.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바로 잼있다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받은 나주 신고배가 70% 이상 함유됐다. 과일잼은 보통 장기간 냉동보관한 과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잼있다는 인공경화제나 보존료 같은 첨가물 없이 배본연의 맛을 재현했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신세계家 사위, 업계 첫 ‘패션뷰티 전용 펀드’ 조성

시그나이트파트너스- 산은캐피탈
560억 규모 아뜰리에투자조합 결성
기능성 뷰티·패션테크 기업 등 투자

신세계그룹의 벤처캐피탈(CVC) ‘시그나이트파트너스’가 산은캐피탈과 함께 업계 최초로 패션뷰티 전용 펀드 결성에 나선다. 신세계백화점·신세계인터내셔널·SSG닷컴·W컨셉 등 신세계그룹이 보유한 온·오프라인 패션뷰티 인프라와 산은캐피탈의 금융지원을 활용해 유망 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진출을 통한 투자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포석이다.

시그나이트파트너스는 산은캐피탈과 공동으로 560억 원 규모의 ‘신세계-KDBC아뜰리에투자조합(이하 아뜰리에투자조합)’을 결성한다고 7일 밝혔다. 시그나이트파트너스가 현재까지 결성한 펀드 중 최대 규모다.

시그나이트파트너스는 신세계그룹이

2020년 7월 설립한 벤처캐피탈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사위이자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의 남편인 문성욱(사진) 신세계인터내셔널 부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이 50%, 신세계백화점이 30%, 센트럴시티가 20%를 출자했다. 현재 아뜰리에펀드를 포함해 총 6개의 펀드를 결성, 2000억 원 이상의 운용자산(AUM)을 굴리고 있다.

이번에 결성한 아뜰리에투자조합에는 시그나이트파트너스와 산은캐피탈이 공동업무집행조합원(CO-GP) 역할을 맡고, 우린은행·서울시·신세계·신세계인터내셔널·SSG닷컴 등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했다. CO-GP 양사는 아뜰리에투자조합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분야별로 투

자 전략을 세분화했다.

아뜰리에투자조합은 패션·뷰티·테크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브랜드의 글로벌 확장을 통해 투자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목표다.

뷰티에선 필라, 스킨부스터, 미용 레이저장비 등 메디컬 등급의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과 기능성 뷰티 디바이스 기업, 뷰티테크 및 원료 개발사 등에 투자한다. 패션에선 시장규모가 크고 성장률이 높은 카테고리 내에서 강점을 가진 브랜드와 자신만의 기술을 보유한 패션테크 기업 등에 투자한다. 디지털 테크 분야에선 이커머스·데이터분석·자동화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뷰티·패션산업의 밸류체인을 효율화할 수 있는 기업, 수출입 업무 디지털 전환 및 자동화 관련 비즈니스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김유연 기자 kyy0907@



교사 ‘학폭조사 업무’ 서 해방…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정부 ‘학교전담경찰관’ 도입

그간 학폭사건 교사 직접 조사
악성민원·학부모 협박 시달려
내년 3월 조사관 2700명 배치
교사 앞으로 교육 활동에 집중

앞으로 교사들이 담당해왔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는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악성민원 등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중대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이를 온전히 선생님 개인의 헌신과 책임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학내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방안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신설돼 현재 교사들이 담당했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맡게 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이 활용되며 2700명가량이 위촉직으로 배치된다. 이들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배치돼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학교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만약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 (가칭)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발생 시 교감과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았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면서 악성민원과 학부모 협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해왔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현재 정원의 10% 가량 증원하고 역할도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1022명 정원인 SPO를 105명 증원해 총 1127명 규모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호영 행안부 경찰국장은 “SPO가 그동안 학생 보호와 선도 역할을 담당했고 또 형사법적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학교폭력 조사관과의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같이 협의했을 때 사안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정확하게 될 것”이라며 “SPO의 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해 증원 필요성이 있는지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정 기자 oiljung@



수시 실기고사 7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융합콘텐츠창작전공 수시 2차 실기고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치법 단초 ‘故김용균 사건’… 원청대표 무죄 확정

대법 “하청 업체서 발생한 사고
원청 대표에 책임 묻기 어려워”
함께 기소된 14명 중 실형 없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도화선이 된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하청 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까지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이 내린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 기업인 서부발전 김 전 대표와 위탁용역 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대표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7일 밝혔다.

원청 서부발전 본부장과 계전과 차장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일부 유죄가 인정된 하청 기업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한국발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7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당시 24세) 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을 사망 사고에 관한 형사 책임이 인정된 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백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한 2심에서도 김 전 대표에 대한 무죄 판단은 유지됐다.

백 전 대표에겐 1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관한 서부발전 김 전 대표와 본부장, 계전과 차장에게 “이 사건 사망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한국서부발전(주)과 피해자 사이의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나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가운데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이날 유죄가 확정됐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하지만 대부분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쳤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한 명도 없었다.

박일경 기자 ecpark@

‘기후동행카드’ 인천 이어 김포 합류

서울시 내년 1월 시범 도입
6.5만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서울시가 내년 1월 도입하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김포시도 참여한다. 인천에 이어 인근 지자체 중 처음으로 김포시가 합류하면서 기후동행카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울시장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서민부담 완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9월 발표한 친환경 교통혁신사업으로 월 6만5000원에 지하철·버스·파름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5개월간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이용권역은 김포골드라인(6만5000~7만원), 김포 광역버스(10만~12만원)까지 확장된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공동 생활권에 속하는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윈-윈 효과를 기대했다. 이를 반영하듯 두 시장은 2024 서울색으로 선정된 ‘스카이크랄’ 색상의 넥타이와 행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장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김포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커치프를 착용했다.

오 시장은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을 서울시민으로 보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게 시장의 기본 철학”이라며 “인천에 이어 김포시까지 기후동행카드로 연결돼 수도권 교통통합의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김포시민들 가운데 3분의 2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어 공동생활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건 필요한 일”이라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또 하나의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김건희 통화녹음’ 서울의 소리, 2심도 “1000만원 배상”

서울의소리, 유튜브에 공개
김, 위자료 1억 손해 청구 소송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2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소7-1부(김연화 주심장 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백은중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이 기사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50회에 걸쳐 약 7시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넘기고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일부 제의를 공개하고 허용했고 MBC는 해당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법원은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등 관계자들을 향한 다소 강한 어조의 발언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발언 등은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의소리 측은 유튜브 등에 비보도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여사 측은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입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사유 공간 없는 '영상 콘텐츠' 범람의 시대 이미지는 가볍고 부정적? ... 새 감각의 동굴

‘이미지란 무엇인가’의 저자 이술이 생각하는 콘텐츠는

마블영화 영향으로 짧은 영상 콘텐츠 탐닉
흥미·소비에 초점... 변해가는 가치 찾을 때
지금도 새로운 것 계속 만들어... 그것이 출구

“마블영화는 시네마가 아니다(Marvel movies are not cinema).”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주의 감독 마틴 스코세이지의 말이다. 격렬한 활극과 장면의 화려함에만 몰두하는 마블영화에는 인간을 사유하게 하는 공간이 없다. 영화의 미학적 가치, 삶에 대한 성찰이 전무한 흥미 위주의 영화는 테마파크일 뿐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스코세이지가 2019년에 했던 말을 현재에 대입하면, 상업광고로 점철된 클립, 쇼츠, 릴스 등 짧은 영상 콘텐츠는 거대자본의 세력을 받은 마블영화의 다른 형태들이다.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 귀여운 강아지를 보고, 입등석 기내식 메뉴들을 탐닉한다. 현실에서 감각되는 것들이 가상의 이미지로 환원되면서 세상이 콘텐츠로 변하고 있다.

5일 서울 강남구 민음사에서 본지와 만난 책 ‘이미지란 무엇인가’의 저자 이술은 “콘텐츠가 갖는 문제점들이 있다”면서도 “그것을 보수적으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콘텐츠가 예전의 예술 장르와 어떻게 다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콘텐츠는 더 조각나고, 짧고, 산만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같은 지점들이 가지는 한계가 있다. 쉽게 소비되고 사라지는 측면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파생하는 어떤 역동성이나 저력 또한 분명히 있다”고 부연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1의 목적은 ‘팔리는 거’이며, 그 이외의 다른 모든 기준들은 부수적인 것 내지 장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귀엽기만 하고, 재미만 있는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염증’이다. ‘나도 우리 강아지 짝어서 울려야지’라는 생각에 따라 만들어진 콘텐츠들은 ‘가치’가 아니라 ‘소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 지그재그한 감각으로부터 자꾸 새로운 걸 시도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지금도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고, 만들고 있다. 그게 이미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극장 산업이 무너지면서 영화의 형태는 물론 관객의 태도 역시 변화하고 있다. 제작자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극장용과 OTT용 영화를 구분한다. 사람들은 지하철과 버스, 집에서 넷플릭스로 영화를 본다. 3시간짜리 영화를 30분으로 압축한 리뷰 영상을 보며 영화를 다 봤다고 착각한다. 영화관에 가는 일은 이제 중대한 ‘선택’과 ‘결심’의 영역이 됐다. ‘영화예술’은 ‘영상 콘텐츠’로 변하는 중이다.

저자는 “민음사에서 나온 인물잡지 ‘한편’에 시네마가 사라진 현실을 통탄하는 펠리니의 글을 인용한 적이 있다. 이미 영화의 시대가 조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며 “영화 역시 기존의 다른 예술처럼 주의를 기울여 감상해야 하는 장르가 됐다. 영화관에 가는 게 미술관에 가는 것처럼 부담되는 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이미지는 실재로서의 세계를 외면하게 하는 불온한 가상이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이미지는 실재에 대한 새로운 정의로 우리를 인도한다.

스크린 타임(screen time :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칭하는 용어)이 갈수록 늘어나는 시대다. 스크린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건形形色색의 이미지들이다. 원본은 사라지고 그것을 모방한 이미지만 도처에 깔렸다. 실재와 이미지의 지위가 뒤바뀌고 있다.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콘텐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이따금 내가 즐기는 콘텐츠로부터 거리를 두고, 그것이 선사하는 좋거나 나쁜 감각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일이다.

그는 “이미지를 진지하게 분석해야 할 핵심적인 주제인 것 같은데, 철학에서는 늘 이미지를 가볍고 부정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했다. 이미지에 대한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송석주 기자 ssp@

‘아르코미술관’ 50년을 마지막 전시회 열린다

‘어디로 주름이 지나가는가’

오늘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미술관의 과거·미래 점점 확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속 아르코미술관이 개관 50주년을 맞아 기념전 ‘어디로 주름이 지나가는가’를 개최한다.

7일 임근혜 관장은 기자회견에서 “미술관 50주년을 앞두고 준비한 올해 마지막 전시”라며 “다양한 예술 주제가 교류하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장소로서 기능해온 아르코의 과거와 앞으로의 지향점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8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의 제목은 ‘어디로 주름이 지나가는가’이다. 전시 제목은 들뢰즈의 저서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르코’에서 인용한 문구다.

치승주 큐레이터는 “사유체계로서의 주름이 지난 과거와 미래의 접점, 여러 흔적과 접촉의 계기로 생긴 다양한 형태의 속성을 전시에 접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에는 국내 작가 총 22명의 신작 및 미발표작과 미술관 전시사를 살펴볼 수 있는 아카이브 자

료약 200점이 소개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근현대사 속 민중의 애환과 희망을 회화로 표현한 신학철 작가가 ‘일본 관동대지진 조선일대학살’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직접 소개했다. 신작가는 “땅속의 죽음들을 바깥으로 끌어냈다”라며 일본군 주도로 벌어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분노와 아픔을 전했다.

한편 별관에서 선보이는 아카이브 자료는 아르코의 역사를 조망하는데 유용하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1974년 종로구 관훈동에서 개관해 2005년 혜화동에 이르기까지 공공미술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 아르코의 과거와 현재를 확인할 수 있다.

송석주 기자 ssp@

환경 파괴, 개발로부터 숲을 구한 스웨덴-독일-한국 십대들의 실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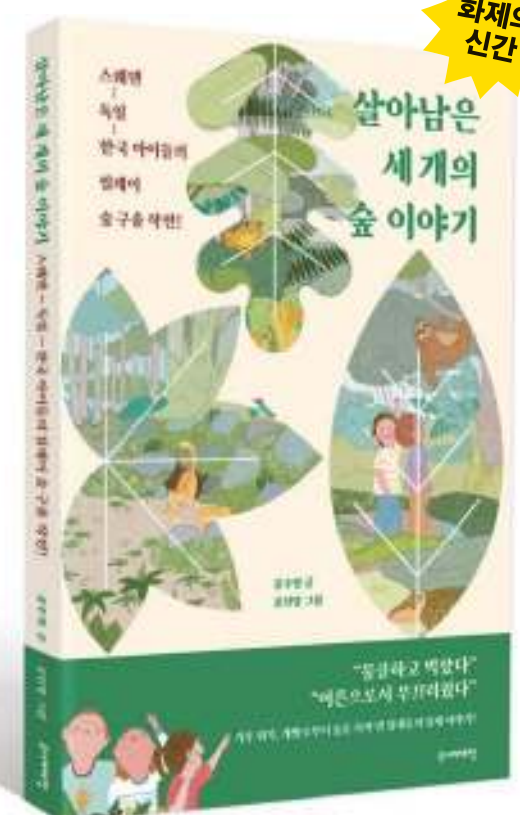
실화를 바탕으로 탄탄하고 흥미롭게 쓰인 청소년 환경 논픽션!

- * 스웨덴 십대들이 구한 코스타리카의 ‘영원한 어린이의 숲’
- * 독일의 아홉 살 소년 펠릭스 핑크바이너에서 시작된 ‘나무 1조 그루 심기 운동’
- * 원시림 ‘곶자왈’ 개발을 막은 제주의 아이들

- ♣ “세 편 모두 실화란 점이 어른으로서 부끄럽게 한다.” — 신경준(송문중학교 환경교사, 환경교사모임 공동대표, EBS중학 환경 강사)
- ♣ “어른들은 쉽게 포기할 때가 많은데 아이들은 일단 해 본다. 지구가 계속 숨 쉬는 건 이런 사람들 덕분이다.” — 이용규(선홍초등학교 교사)
- ♣ “걱정, 불평만 늘어놓지 말고 책의 주인공들처럼 나무를 심고 숲을 지키자! 책을 읽는 내내 물갈고 베풀었다.” — 안도연(안산초등학교 교사,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 모임 회원)
- ♣ “동물, 숲, 강, 바다, 지구를 지키려는 청소년들의 행동이 지역, 나라,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 책은 그 거대한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 문용포(곶자왈작은학교 대표교사)

살아남은 세계의 숲 이야기

글 공주영 | 그림 공인영 | 184쪽 | 14,000원 | 주니어태학



화제의
신간

시니어연극단 대학老愛 배우 유만석



잊고 살았던 꿈의 무대 '청춘의 바다' 다시 연다

스물셋, 무명 배우는 이상과 현실 앞에서 현실을 택했다. 그 선택이 일흔 넘어서까지 미련으로 남을 줄 몰랐다. 유만석(78) 씨는 꿈의 무대로 돌아왔다. 오랜 로망을 소박하게 이뤄나가고 있는 지금, 그는 말한다. 그 게 언제라도 좋아하는 일을 꼭 하라고.

제4회 서울시니어연극제 개막식 후 대학로 종로마루홀 내 모든 조명이 꺼졌다. 곧 개막작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연극단 대학老愛(대학로애)의 '지하철 두더지'가 소개됐다. 암흑 속에서 살 거머니 무대에 오른 유만석 씨는 생각했다. '잘하자. 처음이니깐 더더욱 잘해야 해. 아,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건 절대 안 돼! 연습한 대로만 하자. 잘...' 머릿속에 오만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조명이 탁 켜지고 노신사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탄탄한 발성의 대사가 극장을 울렸다.

"나는 을지로3가역 역장이다. 1983년 개통된 2호선 을지로3가역은 2000년대부터 오후 12시, 2시, 4시, 6시, 하루에 네 번 분주해진다. 지하철 문이 열리면 두툼한 패딩을 입은 어르신들이 어깨에 쇼핑백을 잔뜩 메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곳으로 모인다. 어르신들이 내려놓은 쇼핑백들은 끝이 보이지 않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쇼핑백들은 어르신들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진다. 우리는 그들을 '지하철 두더지'라고 부른다."

시작을 알리는 2분 30초 남짓의 독백. 완벽히 해냈다. 연극은 순조롭게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 청년 유만석의 꿈도 일흔여덟에 다음 스텝을 밟기 시작했다.

해방둥이의 연기 짝사랑

1945년생 '해방둥이' 유만석 씨는 6·25전쟁 후 일었던 연극 붐을 또렷히 기억하고 있다. 동족상잔의 비극 속 피폐해진 심신을 위로한 건 동네마다 가설무대를 만들어놓고 활동한 극단이었다. "휴전 이후 연극이 대단히 인기였습니다. 그때 상당히 매료됐어요. 고등학교 가서는 자연스럽게 영화를 즐겼지요. 저는 박노식배우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탤런트 박준규 씨 부친 말입니다. 할리우드 배우 리처드 위드마크도 좋아했지요. 저도 그런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유만석 씨는 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한국 최초의 종합예술대학인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 전신)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해 배우 수업을 받았다. 그때가 1965년이였다. 기회는 곧 주어졌다. 1967년과 1968년 2년여 동안 작은 배역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꿈에다가 갈수록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다. 용돈벌이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이상만 좇을 순 없었다. "대여섯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든 생각은 생활의 안정 없이는 어렵겠다는 거였어요. 하루 세 끼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두 끼를 먹더라도 안정만 됐다면 계속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언제까지고 고향에서 돈을 받아 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보내줄 수도 없을 것

이고요. 배우로 인정받으려면 무수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오래 활동한다고 다 되지도 않습니다. 이름 한 번 못 알리고 늙을 수도 있지요. 그 어떤 보장도 없는 생활... 접어야 했습니다. 현실이 그랬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어요."

1969년 유만석 씨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다. 아니, 내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배우가 되고 싶은 감정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다.

대학老愛와 다시 꾸는 꿈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호프집, 신문 판매직, 세탁소, 부동산중개업까지 하며 바빠살다 보니 어느덧 일흔이 넘었다. "젊었을 때 마스크가 꽤 괜찮았다"며 보여준 사진 속 부리부리한 청년의 눈매는 어느덧 선하게 처져 있었다. 이제 꿈꾸기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을 때 운명은 그를 연극으로 이끌었다. "복지관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기관인 줄만 알았습니다. 여러 특화 활동을 한다는 것은 몰랐어요. 우연히 컴퓨터를 가르쳐준다고 와봤습니다. 가입하는데 이것저것 묻더군요. 그런데 마침 가입 상담해주신 분이 연극단 담당이었던 겁니다. 이제 와 다시 한다는 것이 어쩐지 꺼려졌는데 올해 생각

배우 지망 청년 현실과 타협...
여러 직업 거치니 어느새 일흔
50여년 만에 무대 위로 올라와
연극 '지하철 두더지'로 꿈 도전
연기하며 '즐겁다'는 것에 만족



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봐야겠다고요."

유만석 씨가 가입한 대학老愛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시니어연극단이다. 2011년부터 활동한 극단 빨래터가 지역사회 노인 전문 연극단원들의 활동을 알리고 전문성을 갖춘 연극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5년 7월 대학老愛로 탈바꿈했다. 세대 공존 연극학교(수업, 공연)를 통해 노인 연극인을 양성하고, 격년으로 서울시니어연극제를 운영 중이다. 단원은 2023년 11월 기준 모두 12명(평균연령 71.4세). 주로 대학로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으로 구성돼 있다.

단원들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모여 합을 맞춘다. 대본을 읽고, 역할을 분담하고, 내공을 닦아낸다. 그렇게 올리는 '지하철 두더지'를 연극제에 올리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크지 않은 무대, 작은 역할이지만 유만석 씨는 만족해 보였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 두 시간이 기다려져요. 작품상이 없는데, 혹 있었다면 우리가 받지 않았을까요?(웃음)"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

유만석 씨는 짐짓 차분해 보였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식의 호들갑은 없었다. 알려진 배우가 되고 싶다는 욕망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가 이토록 집착한 이유는 과거 행보로 짐작할 수 있다. 1995년 그의 나이 쉰의 일이다. 그때까지도 유만석 씨는 연기 욕심을 냈다. 역할과 분량에도 신경 썼다. 하지만 세상은 마음처럼 돌아가지 않았다. "실은 영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출연했습니다. 하고 싶은 역할이 있었는데 다른 배역을 맡게 됐어요. 일본인이었지요. 촬영장에서 쪽 대본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말이면 어떻게든 외워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짧지도 않은 대사를 모르는 말로 하려니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 카메라를 돌려놓고 후시 녹음을 했습니다. 개봉 후 열린 시사회 무대에 오르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유만석 씨는 이제 어떤 것도 따지지 않는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그 자체의 가치를 완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뜸 그는 아들 이야기를 했다. 학창 시절 게임을 좋아해 속을 썩이던 아들은 아르바이트로 게임 회사에 들어갔다가 정식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지금까지 잘 일하고 있다고 했다. 좋아하는 일을 순수하게 따른 아들을 긍정하는 것처럼 들었다.

다시 50여 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스물셋 유만석의 선택은 어떨까. 그는 다들 거라고 했다. "잊고 살면서도 가끔 연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따금 도전하고... 그러다 일흔여덟이 됐어요. 지금은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연기를 하면서 즐겁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깨달음. 그 뒤에 그는 이렇게 묻는 것 같았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글 / 조형애 기자 hyungae@
사진 / 브라보 마이 라이프,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연극이 끝난 후



연극 '지하철 두더지'를 올린 대학老愛 단원들의 허심탄회한 소감을 들었다. 자기반성부터 쓴소리까지 역할 크기와 관계없이 이들의 대화는 진지했다. 무대 아래 단원들은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었다.

"돌아보니 대본 속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사에 있던 '7업' (깨끗하게 클린업, 용모를 단정히 드레싱업, 말하기보다 듣기 섣업, 혼자 있지 말고 모임 활동 쇼업, 밝고 유쾌한 분위기 치열업, 지갑을 열고 입은 닫는 페이스업, 마지막으 로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기브업)은 친구들에게도 들려줬습니다. 늙어서도 지켜야 한다고요. 무대에서 또 일상에서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연극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 배우 남궁유선

"작은 역할을 맡았지만 나름대로 카리스마를 보여준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긴 대사를 외우고 능청스럽게 연기하는 다른 단원들을 보면서 배우고 또 배웁니다."

- 배우 신동숙

"하루는 대사를 외웠는데도 자꾸 실수해서 울었습니다. 암기는 자신 있었는데 잊어버리는 스스로에게 좌절감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 눈물이 더 열심히 하자는 다짐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또 다른 도약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 배우 양숙자

"딸에게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지 물었는데 대뜸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봤냐'고 했습니다. '대본만 앵무새처럼 외워서 하는 게 과연 연극이라고 할 수 있냐'며 신랄하게 비판하더군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동안 너무 편하게 해온 건 아닌가 반성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기에 임해야겠습니다."

- 배우 구신자

"현실의 저는 사람을 앞에 두고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닙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을 끌어내는 게 연극의 매력이라고 매번 느낍니다."

- 배우 송원자

"지금까지 연극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한 가지 단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연극 무대에서 사실은 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 연기, 그리고 내 것에 몰입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우 김정남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어린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린이집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린이들의 내일을 담는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 53호 흥천시동 하나어린이집 (23년 9월말 기준 78개소 건립완료)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백악관 공연’ 윤 대통령, 올해의 스타일리시 인물

NYT 선정 71인에 포함

“‘아메리칸 파이’ 완벽 소화
‘아메리칸 아이돌’ 걸맞아”
‘롤라팔루자’ 공연 뉴진스
한국계 배우 그레타 리도

윤석열 대통령과 인기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선정한 올해 스타일리시했던 인물 71인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NYT는 6일(현지시간) 윤 대통령과 뉴진스 등을 ‘2023년 가장 스타일리시한 사람 71인’으로 뽑았다. 해당 명단에는 찰스 3세 영국 국왕, 농구선수 지미 버틀러,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배우 마고 로비, 가수 비온 세와 테일러 스위프트 등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NYT 스타일리시 명단은 특히 한국인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NYT는 지난해에도 가장 스타일리시 인물 93인을 뽑았지만, 여기에는 단 한 명의 한국인도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뽑힌 스타일리시 인물 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단연 윤 대통령이었다. 기사에는 미국 백악관에서 나비넥타이를 맨 채 마이크를 들고 있는 윤 대통령의 사진도 함께 게재됐다. 윤 대통령이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미국 싱어송라이터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다. NYT는



“백악관 국빈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는 윤석열 대통령. AP뉴시스 ▲록 페스티벌 ‘롤라팔루자’에서 공연하고 있는 뉴진스. 연합뉴스

“그가 완벽하게 소화한 ‘아메리칸 파이’ 공연은 미국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아이돌’에 걸맞았다”고 평가했다.

또 NYT는 아이돌그룹 뉴진스를 올해의 스타일리시 인물로 선정하며 배경에 대해 “토끼 귀 모자를 쓴 뉴진스 멤버들은 1990년대 말~200년대 초 알앤비(R&B)에서 영감을 받은 사운드로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랐다”며 “K팝 여가수 최초로 미국 시카고 대형 음악축제 ‘롤라팔루자’에서 공연하는 등 다양한 측

면에서 명성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국계 미국인 배우 그레타 리(이지한)도 NYT 선정 2023년 스타일리시했던 인물에 꼽혔다. NYT는 “영화 ‘전생’에 출연한 이 배우는 패션을 재미있게 만드는, 두려움 없는 의상을 입었다”며 “그녀의 레드카펫 복귀는 할리우드 배우 노조 파업 중단으로 얻은 많은 혜택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올해 스타일리시 명단에는 사람이 아닌 것들도 다수 포함됐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새로운 장소로 주목받는 공연 장소 피어, 미국 멧갈라 쇼에 나타난 바퀴벌레,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만들어진 프란치스코 교황의 답례이크(AI 기반 인물 이미지 합성 기술) 사진 등이 선정됐다.

NYT는 “선정자 가운데 일부는 ‘사람’이 아니긴 하지만, 명단에 오른 대상 모두 우리가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가수 겸 작곡가 테일러 스위프트
타임 ‘2023 올해의 인물’에 선정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23년 올해의 인물에 가수 겸 작곡가 테일러 스위프트(사진)가 이름을 올렸다. 연예계 인물의 단독 수상은 스위프트가 최초다.



6일(현지시간) 타임은 “올해 스위프트는 예술과 상업적 측면에서 핵융합과 같은 에너지를 분출했다”며 “세계는 그녀의 작품을 보고 클릭했고, 함께 울었고, 춤을 췄고, 노래를 따라 불렀다. 열광했다. 경기장에서 영화관까지, 그녀의 작품은 그들의 삶에 녹아내렸다”고 분석했다. 최종 후보 명단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찰스 3세 영국 국왕,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33세인 스위프트는 월드 투어와 앨범 판매로 천문학적인 산업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순자산 11억 달러(약 1조 4465억 원)의 기록을 세우며 올해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5위를 기록했다. 황효원 기자 hyowon@

롯데그룹 ‘마음온도 37도 캠페인’
소외계층 아동 가정 난방비 지원



롯데백화점 본점에 설치된 마음온도 37도 캠페인 모금 부스. 사진제공 롯데지주

롯데그룹은 내년 1월까지 ‘마음온도 37도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롯데와 한국구세군이 2016년부터 진행해 온 연말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체온 36.5도에 마음온도 0.5도를 더해 기부자와 수혜자가 따뜻함을 함께 나누는 행사다.

롯데는 소외 계층 아동 가정을 상대로 보일러 및 온수기 교체, 온풍기 설치 등 난방 시설을 개선하고 난방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년에 비해 수혜자를 확대, 전국 총 600여 가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롯데는 캠페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홍보를 펼친다. 이달 31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과 롯데월드몰 등 서울·경기 지역 5곳에 모금 부스를 설치해 캠페인을 펼친다. 유승호 기자 peter@

백기봉 김앤장 변호사,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선출

한국인 세번째…임기 9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백기봉(59·사법연수원 21기·사진) 변호사가 유엔 산하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한국인이 ICC 재판관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ICC 당사국총회에서 백 변호사는 선임 재판관 6명 중 한 명으로 뽑혔다. 임기는 9년이다. 백 변호사의 선출

은 한국인으로 세 번째다. 앞서 송상현 전 ICC 소장에 이어 정창호 현 재판관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백 변호사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 나선 123국 대표단 투표로 선출됐다. 11라운드 접전 끝에 유효 투표수(123표)의 3분의 2(82표) 이상을 획득, 당선됐다.

국제형사법 전문가인 그는 서울대 법대와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국제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수원을 마치고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한국씨티은행 ‘코리아 디지털 리더스 서밋 2023’ 개최

디지털 기업 경영인 30여명 초청

한국씨티은행은 국내 주요 디지털 기업 경영진을 초청해 ‘코리아 디지털 리더스 서밋 2023’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디지털 플랫폼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디지털 시장 전망을 공유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미나와 서밋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진행된 행사에는 약 30여 명의 국내 주요 디지털 기업들의 경영진들이 참

석했다. 강지수 클레온 공동창업자가 최근 급변하는 디지털 산업 및 인공지능(AI) 시대의 위기와 기회에 대해 발표했다. 이원웅 마스터카드 이사는 현재 디지털 시장에서 결제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상카드서비스(VCA)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씨티은행에서는 김석현 커머셜캐시 세일즈 팀장이 디지털 기업 고객의 창업부터 해외 진출 및 성장까지,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씨티의 글로벌 बैं킹 서비스를 소개해 디지털 기업 고객들의 큰 관심을



검찰에서 22년간 근무했다. 재임 기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세계검찰총장회의준비사무국외신대변인, 유엔마약및국제범죄사무소(UNODC) 방콕지부 선임법률자문관 등을 지냈다. 2014년 검찰을 떠난 그는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ICC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형 기자 junior@

김성태 기업은행장, 中 小 企 간담회
“미래성장동력 확보 최선 다할 것”



“내년에도 중소기업의 위기극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금융·비금융 지원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기술력 우수기업 발굴·육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성태(사진 맨 오른쪽) IBK기업은행장이 현장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7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대표 2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금융비용 부담 증가, 구인난 등 기업경영 애로사항과 기술 우수기업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 행장은 “오랜 기간 전통 제조업을 영위하며 대한민국 발전을 주도한 기업부터 첨단 산업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창업기업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행장은 인천과 부천 관내 영업점을 찾아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고충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약 1조 원 규모의 금리를 감면하는 ‘중소기업 통합 금리감면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자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대출·예금 금리 등을 우대하는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했다. 내년에는 휴가비, 복지비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이재영 기자 lly0403@·사진제공 IBK기업은행

인사

◆SK그룹·SK수펙스추진협의회(신규 선임) ◇위원장 △SV위원회 지동섭(사장) △Governance위원회 정재현(사장) ◇임원 △서은규 △차국철 △SK텔레콤 ◇전임 Top Team 임원 △정재현 대외협력 담당(사장 승진) △김양섭 Corporate Planning 담당(CFO) △유경상 Strategy&Development 담당(CSO) ◇신규 임원 선임 △조현덕 AI Communication 담당 겸 서비스개발 담당 △이재신 Global AI사업개발 담당 △유철준 Smart Device CT 담당 △채영훈 대구 담당 △송정범 B SME 담당 △김규영 T-B Enterprise Sales CP 담당 △김재성 BDC기술담당 △김명국 Cloud CO 담당 △홍선기 수도권 Infra 담당 △이현우 GS AIDC추진 담당 △박규현 Digital Comm 담당 △황재만 HR 담당 △이혜연 변화추진 담당 △김성진 B CR 담당 △김호근 법무 담당 △이재준

SKTA 대표 △SK하이닉스 ◇사장 승진 △김주선 ◇신규 임원 선임 △김지호 △권연오 △김기태 △손호영 △이동훈 △이일훈 △이재현 △이주영 △이현철 △조성봉 △최재건 △황종일 ◇연구위원 선임 △김수길 △김승범 △김태균 △김희상 △오해순 △임기빈 △SK이노베이션 ◇임원 신규 선임) ◇SK이노베이션 △박성범 Green전환기술센터장 △임종섭 성과관리담당 △배기락 재무3담당 ◇SK에너지 △김선일 기계·장차·검사실장 ◇SK아이이테크놀로지 △이상준 품질경영실장 ◇SK아스온 △지용민 기획·사업지원실장 ◇SK온 △손정삼 조립기술 담당 △최상규 A Project 담당 △이경민 사업개발 1담당 △SK네트웍스 ◇신규 임원 선임 △황용민 기획재무실장 ◇투자사 대표 선임 △명재호 엔코아 대표 △SKE&S ◇임원 신규 선임 △박성준 리스크매니지먼트본부장 △김대진 전력사업개발본부장 △임소옥 재무2본부장 △전종영 LNG 아메리카 법인장 △김민호 수소글로벌본부장 △나경원 컴플라이

언스본부장 ◇자회사 대표 선임 △윤정원 파주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 △박재택 부산장관에너지 대표이사 △구자성 전남도시가스 대표이사 △박병혁 전북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 △SK가스 ◇임원 신규 선임 △TSP사업실장 이학철 △LNG Solution실장 김준형 ◇자회사 대표 선임 △SK어드밴스드 김철진 △SKC ◇보임 △류광민 SK넥실리스 대표 △최두환 SK피아이에스글로벌 대표 ◇영입 △유지한 경영지원부부장(CFO) ◇임원 선임 △사업개발실장 이현아 △SK넥실리스 기업문화실장 정혜연 △SK넥실리스 소재개발센터장 겸 생산기술센터장 전경배 △에코켄스 마케팅실장 겸 SK티비메이저스톤 마케팅실장 최달병 △SK실트론 ◇임원 선임 △김자영 수출개선담당 △이치복 Wafering기술담당 △SK메티리얼즈 ◇신규 임원 선임 △한만재 양승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서솔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재과장 송명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진석 ◇과장급 승진 △서솔지방공

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 문경만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김동연 ◆대신파이낸셜그룹(대신증권) ◇상무 신규 선임 △이성영 △김영현 △김명국 △김영일 △김현복 △정민욱 ◇부사장 승진 △김기모 ◇전무 승진 △이순남 △임민수 △김수창 △홍종국 △최근영 △나유석 △강준규 △강윤기 ◇전무 전보 △PF1부부장 권택현 △Wholesale부부장 정연우 ◇상무 전보 △디지털부부장 최광철 △기업금융1담당 박석원 △PF2부부장 김상혁(대신자산운용) ◇이사대우 그룹장 신규 선임 △채권운용그룹장 임동영 ◇전무 전보 △마케팅&지원그룹장 이재우(대신저축은행) ◇이사대우 본부장 신규 선임 △영업2본부장 이재민 △준법감사인 이남성 ◇전무 승진 △이영석(대신프라이빗에쿼티) ◇상무 신규 선임 △백병훈(대신경제연구소) ◇전무 승진 △장지남 ◆시선테라퓨틱스 △대표이사 임미정 ◆케이워터운영관리 △대표이사 우달식

문학의 쫓

이상미
이상아트 대표

부처님, 석가, 세존, 석존, 붓다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싯다르타(Gautama Siddhartha)의 주요 질문 중 하나는 세상의 고통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런 불교철학과 맞닿은 지점에서 고

민을 했던 많은 예술가들은 붓다를 작품의 오브제로 활용하곤 했는데 그중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백남준의 'TV붓다' 시리즈다.

서양예술사에 비디오아트라는 사조(ism)를 한국인 최초로 창시한 비디오 설치 미술의 선구자인 백남준(1932~2006)이 고안한 이 시리즈 작품들은 카메라와 TV를 배경으로 앉아 있는 불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기술의 아이콘인 카메라와 TV 그리고 사색과 깨달음의 상징인 부처의 구성은

했다. 오프닝 직전에 백남준은 골동품가게에서 구입한 불상으로 TV 시청자를 만들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한다. 그 후 비디오카메라가 추가되었고, 그렇게 동양의 신과 서양 미디어의 만남은 과거와 현재의 시선 속에서 서

로를 응시하게 된 것이다. 미국 데이트모던, 샌프란시스코현대미술관, 스미스소니언미술관, 와타리현대미술관 등에서 회고전을 열었던 그의 이 작품은 소더비 미술경매에서 3억 원에 팔렸으며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술 컬렉션 작품으로 분류된다. 백남준의 작품은 뉴욕현대미술관(MoMA), 포퍼두센터, 구겐하임, 휘트니, 루이지애나, 카스텔로디리볼리, 시카고 그리고 스톡홀름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리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백남준, 1974년작〉

과거와 현재의 시선 'TV붓다'

첫눈에 다소 장난스럽기도 하다. 부처는 TV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고, 카메라는 부처를 응시하는 이 작품을 두고 혹자는 자아와 인간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며 끊임없는 응시 경쟁을 벌인다고 평한다.

해당 작품의 부처는 폐쇄회로 카메라로 촬영된 TV화면에서 자신의 실시간 이미지를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자신의 모습에 매료된 나르시즘에 빠져든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바라보고 있노라면 웃음이 피식 나오기도 한다. 자칫 달리 보면 부처가 자신의 무한 재생인 폐쇄회로 TV 화면 속 이미지 루프에 영원히 갇힌 운명에 처해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해당 작품에 표현된 부처는 무드라(mudra)라는 상징적인 손짓을 하고 있는데, 이 자세는 고요한 명상을 위한 수행 자세를 일컫는다.

TV붓다 작품은 1974년 미국 뉴욕의 갤러리아보니노(Galeria Bonino)에서 열린 네 번째 전시에서 최초로 탄생

이 작품은 부처가 TV를 통해 자신을 성찰한다는 나름 진지한 주제를 제시한다. 그러나 자기 몰입과 자신의 이미지에 몰두하는 SNS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의 허영심을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더불어 기술과 미디어가 끊임없이 24시간 감시한다는 경각성 메시지도 동시에 던진다. 이렇게 다중적 의미를 던지는 백남준의 TV붓다 작품은 백남준의 윤패함이 엿보이는 성공적인 메시지 전달형 작품이다.

최근 백남준에 관한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 '백남준: 달은 가장 오래된 TV'가 전국 극장가에 개봉을 했고 백남준의 초기작인 '시스템체널'이 서울에 처음으로 선을 보인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전시와 광주미디어아트 플랫폼의 백남준 특별전 '세상에 없던 예술'이 전국의 예술 애호가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들뜨기 쉬운 연말 연시 백남준 작품을 통해서 자기성찰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그 배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배움은 우열이 생기고 갈등이 심해져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다. 인간의 분별과 망상을 없애려면 학문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노자의 주장이다.

☆ 시사상식 / 취소가치

흠어진다는 의미를 지닌 한자 '취(擢)'와 '희소가치(稀少價值)'를 합쳐 만든 신조어다. 다른 사람에게서는 취발적이고 무의미한 소비로 보이지만, 자신에게는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는 비용을 뜻한다.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율로 문화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소비문화 또한 과감해지고 있다. 취소가치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어느 기업의 제품을 불매하는 것 또한 일종의 취소가치에 따른 소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이슈&인물

'창립 70주년' 금융투자협회 이끄는 서유석 회장

“장기투자 정착 위해 세제혜택 필요”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우리 금융투자업권의 사업 추진에 영향이 많아 아쉬웠던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의 성장에 필요한 과제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본지와 만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취임 첫해를 돌아보며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의지는 굵히지 않았다. 1988년 대한투자신탁에 입사한 후 2016년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에 올라 사장직을 수행했던 서 회장은 올해 초 운용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금투협회장에 취임해 이제 금융투자업계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

서 회장은 “그간 회원사 입장에서 협회를 봐왔는데, 협회장이 되고 보니 협회의 역할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정부부처만 하더라도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부처와 접점이 있는 사안이 다수”라고 밝혔다.

1953년 전신인 대한증권업협회로 출범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회원사는 이날 기준 총 569개사다. 증권사 61개, 자산운용사 325개, 선물사 3개, 부동산신탁사 14개 등 다양한 업권의 회원사들이 모여있다. 금융투자협회의 역할이 자본시장에만 국한될 수 없는 이유다. 지난달 25일로 정확히 창립 70주년을 맞이했다.

◇신용등급 'A-BBB' 수요예측 흥행…비우량 기업 '자금 숨통' 틔웠다=올해 주요 성과로 증권사 일반환전 허용과 하이일드펀드 과세 특례를 꼽았다. 2014년 도입됐다가 3년 만에 일몰된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동양사태 이후 위축된 BBB 신용도 회사채의 자금공급을 위해만 들어졌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저신용 중소형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재도입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서 회장은 “하이일드펀드가 BBB등급의 수요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며 “비우량기업의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향후 세제혜택 기반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과세 특례는 내년 가입자까지만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차액결제거래(CFD) 사태와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미흡,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일부 압초도 맞닥뜨렸다. 이러한 사고들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금융투자협회가 위축된 국내 벤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해오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인지급결제, 공모펀드 직상장 등을 멈춰 세우기도 했다.

서 회장은 “해외부동산 부실 등 부정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적 이슈도 공존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협회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준법감시인 교육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년에도 금융투자업계를 둘러싼 금융환경이 녹록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동산 PF, 주가연계증권(ELS)뿐만 아니라 모든 자본시장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히 대응하는 중”이라고 했다.

◇“공매도 개선 방안, 불합리한 시스템 개선할 기회”= 부동산 PF 자금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비 안정된 모습이지만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다양한 업권 모여…협회역할 강화
부자감세 인식 버리면 투자자 윈윈
부동산PF등 시장위험에 선제대응

모니터링하는 중이다. 내년까지 시장안정 조치들이 연장 운영되면서 완충장치를 해줄 것”이라며 “증권사별로 사업장의 신용리스크와 손실을 미리 파악해 부실채권 매각, 자금조달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했다.

최근 뜨거운 공매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도를 돌아보고 불합리한 시스템은 개선할 좋은 기회라고 봤다. 서 회장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개발도 과거에 한 번 얘기가 나왔을 때 ‘어렵다’는 결론으로 끝난 사안인데, 그사이에 우리 IT기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지금은 가능한 상태가 됐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어디까지 확장 가능한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를 충분히 시장과 설명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해 투자자 윈윈했으면..”= 동시에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글로벌 투자은행(IB) 경쟁력 부족, 낡은 자본시장 인프라 등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국내 증권사들의 지난해 해외법인 자기자본 규모는 8조8000억 원으로 2021년보다 13.3% 증가했지만, 글로벌 IB나 아시아 주요 금융사들에 비해서는 규모나 역량 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다. 국내 증권사 중 아시아 IB 리그 20위 권 내에 드는 곳은 아직 없다.

내년 시장 성장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3대 과제로는 △사적연금 활성화 △주가 부양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꼽았다. 국민들의 노후자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연금캠페인, 연기금 분산투자 구조의 디딤펀드 등을 추진하고, 장기투자 문화형성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장기투

자를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회장 출마 공약으로 제시했던 법인지급결제, 공모펀드 활성화 등을 빠짐없이 챙겨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 회장은 “내년에는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더 해소하고 싶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적으로 배당 부족, 자사주 소각 등을 얘기할 때면 세금 문제가 항상 걸린다”며 “또 세금 혜택을 이야기하면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에 갇히는데 ‘작은 걸 주고, 큰 걸 얻자’라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본시장도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대담=김남현 기자 kimnh21c@

정리=정희민 기자 hihello@

박민규 기자 pmk8989@

이투데이, 말투데이

☆ 조지 노먼 더글러스 명언

“교육이란 똑같은 생각을 찍어내는 국영공장이다.”

소설 '남풍(South Wind)'으로 유명한 영국작가다. 외교관이었던 그는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질학·동물학·고고학을 연구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쓴 여러 여행책은 학식, 통찰력, 기발함 그리고 훌륭한 산문을 결합한 작품이란 평을 듣는다. 그는 '마녀의 나라' '유럽 기행' '회고록' 등을 남겼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868~1952.

☆ 고사성어 / 절학무우(絶學無憂)

학문을 중도에서 그쳐 버리면 걱정이 없어진다는 말이다. 노자가 유교의 학문을 두고 평한 말이다. 노자(老子) 도덕경(道德經) 제20장 첫머리에 나온다. 배움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다. 배움이란 확정한 방향이나 전통적으로 확립된 내용을 모방하고 견지하는 형태를 말한다. 배움을 이어가되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11월 27일 통계청은 청년층(19~34세)의 미혼율이 80%을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30대 초반(30~34세) 남녀의 미혼비율 또한 절반을 넘어 56.3%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올해의 합계출산율이 0.7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은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20% 초과)로의 진입이앞당겨져 우리 사회가 이른바 슈퍼에이지시대에 돌입할 날 또한 머지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3분의 1을 넘어서는 슈퍼에이지사회의 경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새로운 경제운용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슈퍼에이지사회에서는 저출산으로 산업활동 참가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중장년그룹이 조용히 은퇴하여 노년기로 진입할 수 없게 된다.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할 때 국내총생산(GDP)이 0.59% 떨어져 2050년에는 1인당 GDP가 2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지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할 인구인 총부양비의 증가로 이들의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슈퍼에이지 사회에서 고령층은 의료차원의 보호와 외로움 등 정서적 지원의 대상인 한편, 피고용수요의 대상이며 자산의 상당 부분을 보유한 세대로서 소비주체로서의 잠재력 또한 큰 세대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우리나라 60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이 50대(6억4000만원), 40대(5억9000만원)와 별 차이가 없음(5억4000만원)을 보여주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이 소비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주어야 젊은 층의 부담도 줄고 경제활력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령사회로의 효과적인 전환을 위해 각 경제주체의 역할은 이전과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공공재 공급과 복지주체로서 정부는 고령자의 수요충족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고령자차별금지법’의 제정이다. 미국의 경우 1967년 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

논현로

곽 노 성

동국대 명예교수
前 국제통상학회장



하였고, 1986년에는 ‘나이에 관한 퇴직 규정’을 철폐한바 있다. 일본 또한 기초후생연금 개시연령에 맞추어 정년을 연장하는 ‘정년연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을 참조하여 정년 연장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저출산세대의 진입시기인 2030년과 연동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용과 생산의 주체로서 기업은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한 제품의 공급과 고령자의 경험 및 내재된 지식을 활용하여 매출 감소와 생산성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 대형소매업체인 이온(AEON)의 고령자전문마트인 그랜드제너레이션과 미쓰비시중공업이 2016년 설립한 MHI이그제큐티브

엑스퍼트(엔지니어, 관리자, 임원 등 은퇴자 고용, 자문제공) 등이 그 예가 된다. 또한 BMW는 고령자 포용적인 공장디자인을 통하여 고령층이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젊은 노동자 공급의 부족과 생산성 하락을 막을 수 있었다.

슈퍼에이지시대 고령자는 재취업(피고용)의사가 큰 동시에 자산보유 세대로서 소비잠재력이 크므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소비계층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소비는 자산의 유동화와 피고용에 의한 소득으로부터 발생한다. 우리사회 고령자들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어 소비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부동산의 유동화(주택연금 등)를 위한 제도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업상속세 체계의 개편과 함께 개인상속 세율 및 면제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 잠재력 큰 소비주체로 부상

경험·지식 활용해 생산성 하락 막고

부동산자산 유동화 방안 마련해야

‘블랙호갱데이’로 배불린 무신사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최근 진행한 자체 블랙프라이데이(이하 블프) 행사에서 상품을 둘러보다 어처구니없는 경험을 했다.

A브랜드의 정가 39만9000원 코트를 20% 할인해준다는 이야기에 솔깃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브랜드 자사몰에선 동일한 제품이 30% 할인가에 판매 중이었다. 무신사 판매가격이 자사몰보다 약 4만 원가량 더 비싼데, ‘연중 최대 규모 할인 행사’라는 무신사의 블프 홍보 문구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만 같았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무신사의 5%할인쿠폰을 추가 적용하더라도, 이 코트는 자사몰 가격만큼 싸게 사기에 역부족이었다. 연중 최대 할인이라는 문구에 한 번 속았고,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에 두 번 속은 셈이었다.

국내 블프 기간 무신사의 ‘묻지마 가격 정책’에 당한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얼마 전만 해도 2만6970원에 팔던 데님 바지가 블프가 시작하자, 되레 3만9800원으로 가격이 올랐으며 분통을 터뜨린 소비자의 글도 있었다. 이를 본 다수 고객들은 잇달아 같은 사례를 쏟아냈다. 무신사의 다른 브랜드 제품도 이전보다 가격을 올린 뒤, 블프 기간 할인율이 많은 것처럼 줍수를 피우는 방법이 행했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노트북 너머

문 현 호

생활경제부 기자



무신사는 ‘통상적 할인이나, 마케팅 할인이나’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사실 이는 비단 무신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펼쳐는 블프 행사에서 만연한 일이다. 행사 전 판매가를 높여 정가보다 비싸게 팔거나, 최대 할인율이라고 홍보하고 고객을 끌어들인 후 ‘할인쿠폰 불가’로 추가할인을 막는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자, ‘블랙호갱데이’라는 말도 나온다.

‘가격 줍수’ 논란 속에서도 무신사는 이번 블프 기간 역대 최고 매출을 올렸다. 작년보다 무려 50% 늘어난 3000억 원어치를 팔았다. 하지만 ‘블프 역대 최고 매출’의 기쁨을 얻은 무신사는 ‘소비자 신뢰’는 잃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계속 소비자 불만이 커질 경우, 매출 하락은 순식간이다. 한때는 흥했으나, 지금은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수많은 패션 브랜드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m2h@

사설

공무원 생명 못 지킨 정권이 ‘자진 월북’ 조작까지…

감사원이 어제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사망 전 희생자를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냈다.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말문이 막힌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는 3년 전 9월 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근무 중 실종됐다. 약 38시간 동안 바다를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희생됐다. 이 씨의 인권이 짓밟히고 생명을 잃을 동안 이 씨를 지켜줄 수는 없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국가안보실은 우리 군의 보고로 정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 국방부는 북측에 이 씨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해양경찰은 실종 사건을 수색하던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통일부 담당 국장은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안보사령탑인 서훈 안보실장 등은 ‘칼퇴근’을 했다. 이때만 해도 이 씨는 살아 있었다.

더 기막히게도, 안보실은 이튿날인 9월 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피살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는 합참에 비밀자료 작제를 지시했다. 전날 밤 이 씨가 사망했는데도 생존 상태인 것처럼 작성한 안내 문자를 기자들에게 발송했다. 이 씨 생존 시에는 하지 않았던 신변 안전 보장 대북 전통문을 띄웠다.

대국민 사기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안보실은 ‘자진 월북’ 정황이란 것을 언론을 통해 전파했다. 국정원은 지켜만 봤다. 해경은 9월 24일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닷새 후 2차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못 박았다.

조작극은 계속 이어졌다. 해경은 이 씨의 표류 예측 결과 분석과 수영 실험 결과를 왜곡 발표했다. 이 씨가 자발적으로 북한 해역에 간 것이라고 짜 맞추기를 했다. 비공식 심리분석 결과 등을 내세워 이 씨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았다. 이마저도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점은 감추고 도박·이혼 등의 부정적 이미지만 강조해 받아낸 심리분석이었다고 한다. 국가가 국민 생명과 인권을 외면하고, 더 나아가 인간 존엄성마저 파괴했다.

서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야권에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인데도 여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거부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가제는 게 편이란 것이다.

5000만 국민은 정부가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 주권을 위임한다. 세금도 낸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 생명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진 월북’ 조작이나 한다면 어찌 대해야 하나. 사법 절차를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 정치적 파장을 신경 쓸 계제가 아니다. 지위 고하를 가릴 일이 아니다.

글로벌 시선

35유로로 장보기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을 해 보면 물가가 너무 올라 장보기가 겁난다는 말을 심심찮게 한다. 입에 풀칠하기도 벅차니 외식과 여가생활은 사치란다. 물가가 뛺스룩 그 충격파는 서민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기 마련이라 여기저기서 한숨이 나올 만도 하다.

이곳 포르투갈에서도 물가 때문에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나마 정부가 지난 4월 18일부터 주요 식품 46개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면서 식탁물 가는 일정부분 안정을 보였는데, 부가세 면제 조치가 올해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소비자단체는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은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보다 물가가 저렴한 편이다.

클라우드 소싱 데이터베이스 업체 NUMBEO에 따르면 올해 중반 기준 국가별 생활비 지수를 조사한 결과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27위였고 생활비와 임대료를 합산한 지수에서도 21위였다. 서유럽 국가로 보면 최하위 수준이고 일부 동유럽 국가보다도 순위가 낮다.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미국 출신 은퇴 이민자는 날씨 좋고 치안이 안정돼 있고 물가가 싸다고 포르투갈 생활에 만족해한다. 미국에서 연금을 받아 포르투갈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겠다.

포르투갈의 물가가 정말 만족할 정도일까? 생각난 김에 우리나라 돈 5만 원쯤 되는 35유로로 대형마트에서 식재료를 담아봤다<사진>. 코카콜라 6캔(4.35), 과일주스 200ml 12팩(3.74), 계란 12구(2.34), 쌀 3kg(3.9), 돼지고기 목살 610g(4.05), 피망 2개(1.29), 상추 340g(0.86),



양파 1.5kg(2.69), 사과 1.5kg(2.99), 식빵(2.02), 초코빵(1.49), 레드와인(4.99). 모두 합하면 34.71유로. 유로당 환율을 1415원으로 적용하면 4만9100원 정도다.

얼핏 보기엔 식료품이싼 것처럼 느껴지는데 포르투갈 사람들 입장에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물가는 그 나라 국민의 소득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820유로로 인상했다(포르투갈은 연간 급여를 명절급여 2개월치 합산 14개월치 지급. 12개월 기준 최저임금 956.66유로). 종전 760유로에서 단숨에 7.8%를 올린 것으로 역대 가장 큰 인상폭이란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내년도 월환산 최저임금 206만 원보다 70만 원 적은 금액이다.

따져 보면 이곳 물가도 서민들이 뼈다하게 생활할 정도 그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코임브라(포르투갈)=장영환 통신원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만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AMSUNG

당신은 하늘을 보세요
저는 공기를 볼게요

집 안팎 공기를 10분마다 학습해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맞춤청정 AI+**

* 맞춤청정 AI+ : 학습된 실내외 공기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이 꺼져 있을 때에도 10분마다 제품 내 센서 동작 및 공기질을 예측하여 미리 ON 동작. 실외 공기질은 지역별 공기질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므로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한국표준협회 주관 AI+ 인증 취득 - 맞춤청정 AI+ 기술에 대한 제품 소프트웨어 품질을 인증 취득(관련 국제 표준: ISO/IEC 25023:2016) * 맞춤청정 AI+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 SmartThings에서 '인공지능 청정'으로 셋팅 필요
* SmartThings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martThings 앱 설치 및 인증, 무선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합니다.



BESPOKE 큐브™ Air

가전을 나답게.